

# 현대중공업가족

09  
2017



## 이달의 표지 주인공



김민서 양(서부초 5학년)  
김세겸 대리(현대중공업 해양인재운영부)의 딸

### “신기술 개발하면, 수주 어렵지 않아요~”

민서 양은 현대중공업이 뛰어난 신기술을 개발해 세계의 여러 회사로부터 많이 수주했으면 하는 소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근무하는 해양사업부문은 유전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여 차세대 유전 탐사선을 그렸는데요, 사실적이고 꼼꼼한 스케치와 채색이 참 인상적입니다.

가족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며 아빠가 지었다는 애칭 ‘꿈꿀이’ 가족에서는 민서 양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민서 양은 얼마 전부터 친구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생일파티를 열어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할머니들께는 네일 아트를 해드리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미래에 한의사가 되어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는 민서 양이 사우 여러분들에게 힘찬 응원 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아빠와 모든 아빠들 힘내세요! 고맙고 사랑해요”

####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커뮤니케이션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 2017 - 09

## Contents



### 기획1 긴밀한 협력으로 윈-윈!

04 불황 파고 이렇게 넘는다

08 함께 하는 지혜

### 기획2 기량 향상 열기 뜨겁다

10 배움의 계절

12 목표는 금메달!

14生生 도전기



## 사람 · 일

- 16 현장을 가다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강재팀
- 20 소개합니다  
새 그룹웨어 'Hi오피스'
- 22 이달의 도전  
'부동산학개론' 정복하기 /  
현대미포조선 총무부 김은광 사우
- 24 아름다운 동행  
뜨거웠던 여름 봉사활동
- 26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중공업 화공시스템연구실
- 28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주)광림이엔지 설동열 반장이 현대중공업  
유기용 기원·(주)노일 김영수 직장에게
- 30 든든한 파트너  
(주)동화엔텍
- 32 세계를 가다  
사우디아라비아
- 34 그때 그 시절  
1977·1987·1997·2007년 9월

## 지역 · 삶

- 36 만나보았습니다  
여행전문가 겸 사진작가  
권혁준·송영민 씨 부부
- 38 지역 소식  
울산과학대 당구교실  
뮤지컬 '방어진이 간다'
- 40 알아봅시다 실내 스크린 스포츠
- 42 가볼 만한 곳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5D입체 영상관'
- 44 자녀와 함께 경주 키덜트 뮤지엄
- 46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화정동 조서영 씨
- 48 건강칼럼 대상포진
- 50 나를 만나는 시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 보람의 일터

- 52 뉴스 하이라이트
- 56 그룹사 소식
- 58 문화포커스  
연극 '어바웃 타임'  
부활 레전드 콘서트 with 김종서, 박완규
- 60 축구단 소식
- 62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문인화 & 캘리그래피
- 64 여름휴가의 추억 (휴가 사진)
- 66 현중 가족 글마당 (여름 휴가기)
- 76 자녀 초청 견학 행사 후기
-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 80 생활법률
- 81 만화
- 82 쉬어가는 페이지

## 글로벌 전방위 협력으로 新 성장 동력 발굴!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만,  
한 기업의 내부 역량만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세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전력과 '페트콕' 발전 신사업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6월, 한국전력과 '해외 페트콕(Pet-coke) 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발전 관련 신사업 개발에 나섰다.

페트콕은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대부분의 정유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발전 연료로써 경제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페트콕을 태워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CFBC(순환유동층) 보일러라는 특수설비와 고도의 운영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다수의 플랜트 공사 실적을 통해 자체 CFBC 보일러 설계,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전 세계적으로 페트콕 발전소 운영 경험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이다. 또 한국전력은 발전설비 운영 능력과 해외 발전 사업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3사는 각 사의 장점을 결합해 페트콕을 외부에 판매 중인 해외 정유공장 인근에 CFBC 보일러를 건설, 페트콕을 연료로 전력을 생산해 정유공장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페트콕이 생산되는 설비는 전 세계에 약 250기가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5년간 20개 사업을 시행, 매출 10조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우디 합작 조선소 건립 가속도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5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추진 중인 사우디 현지 합작 조선소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5월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 국영 선사인 바흐리(Bahri), 중동 소재 리그 제작 전문업체인 램프렐(Lamprell) 등 3개 회사와 '합작 조선소 설립·개발·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 조선소는 현재 야드 설계가 진행 중으로 연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조선소는 오는 2021년까지 사우디 동부 라스 알하이(Ras Al-Khair) 지역의 '킹 살만(King Salman) 조선산업단지' 내에 496만㎡(150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선박 신조

뿐만 아니라 리그 건조, 선박 및 리그 수리업도 영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인력 지원과 기술용역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7월 사우디 아랍코, 산업투자공사인 두수르(Dussur)와 함께 '선박 및 육상용 엔진 사업 합작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 등 3사는 이번 MOU에 따라 엔진 합작사를 설립하고 합작 조선소 건조 선박에 필요한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2019년까지 '킹 살만 조선산업단지'에 엔진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엔진 합작사 설립을 통해 로열티, 기자재 판매, 기술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MOU 체결은 현대중공업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힘센엔진'의 첫 라이선스 사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힘센엔진은 지난 2000년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중형 디젤엔진으로, 주로 선박 추진용이나 발전용으로 사용되며, 현재 중형엔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번 합작사를 거점으로 삼아 중동 엔진발전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한편, 중국, 터키, 인도, 러시아 등으로도 힘센엔진 라이선스 사업을 확대해 비제조 분야의 매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힘센엔진' 라이선스 사업 첫 진출



현대일렉트릭은 러시아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러시아의 배전반 제조업체인 체아즈(ChEAZ)사와 '중저압차단기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다. 현대일렉트릭이 중저압차단기 2종을 반제품 형태(SKD)로 공급하면 체아즈사는 이를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조립, 생산해 판매하며 현대일렉트릭은 현지 영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

또 현대일렉트릭은 같은 달 건국대학교와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사업 추진 협정'을 맺었다.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관련 설비들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완공 이후 시스템 가동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글로벌 종합건설장비 기업인 CNHi사와 미니굴삭기의 공급과 판매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제휴에 따라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상반기 CNHi사에 2천여대의 미니굴삭기(1-6톤)를 공급했으며, CNHi사는 이를 자사의 1천200여개 딜러망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미니굴삭기 판매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총 5천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 일렉트릭·건설기계도 협력 사업 활발



## | 현대미포조선 |

### LNG 저장탱크 기술개발 포스코와 공동 추진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부터 포스코와 LNG 저장탱크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나서고 있다. 포스코의 원자재 해상운송을 맡고 있는 '일신해운'으로부터 지난해 6월, 5만톤(DWT)급 고부가 벌크선 1척을 수주한 현대미포조선은 이를 계기로 LNG 저장탱크 기술도 선점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벙커C유와 LN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Dual Fuel Engine)'이 탑재되는 이 선박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으로 제작되어 글로벌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가스추진선박기준(IGF CODE)에 따르면, LNG 연료탱크와 파이프는 영하 150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니켈합금강, 스테인리스강, 9% 니켈강, 알루미늄합금 등 4가지 소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초저온 환경에서 이들보다 강도(強度)와 인성(靱性)은 훨씬 뛰어나고 경제성도 매우 높아, 전 세계 선급기관으로부터의 인증과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중순, 고망간강 재질로 제작된 LNG 연료탱크의 탑재를 완료한 뒤 진수를 앞둔 이 선박은 오는 11월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미포조선은 같은 해 11월 포스코와 선박용 LNG 저장탱크 설계 및 시공기술에 관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LNG 저장탱크의 고유모델 개선 ▲선박용 9% 니켈강 상용화 ▲9% 니켈강 적용에 따른 LNG 탱크 성능평가 ▲제수격벽(Swath Bulkhead/액체화물의 유동 억제)을 위해 탱크 내에 설치하는 격벽) 검증 및 실용화 등에 관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ICT융합 인공지능 활용 선박 설계 기술 혁신 프로젝트도 참여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4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공모사업'에 지원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선박 설계 지능형 검증 및 통합업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국책 과제로 선정됐다.

조선산업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게 되는 이 프로젝트는 선박 건조 과정에 있어서 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계 및 업무처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현대미포조선은 울산대학교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울산지역특화 주력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해 '조선·해양플랜트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한 의장품 어셈블리 운영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2차원의 선박 설계도면을 3차원 입체도면으로 구현해 의장품들의 위치 및 형상 파악을 용이하도록 도와, 현장 작업자들의 이해도를 크게 높이고, 후행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여 생산성 향상 및 도크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러시아에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현대삼호중공업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가삼현 대표,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사의 이고르세친 CEO, 박노벽 주러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즈베즈다(Zvezda)-현대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지원 협약은 즈베즈다-현대가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아프리카막스급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설계와 자재 구매, 인력 파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즈베즈다-현대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러시아 극동 조선본부(FESRC)산하 즈베즈다 조선이 각각 40%, 51%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선박엔지니어링 합작회사로, 지난 5월 말 설립됐다.

기술지원 협약 이외에도 러시아 국영선사인 소브코플로트사는 현대삼호중공업에 11만4천DWT급의 탱커 4척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추가 옵션분을 포함할 경우, 물량은 최대 14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합작회사 설립과 기술지원협약 체결로 러시아 시장의 유망 분야로 꼽히는 '그린 아프리카막스(Green Aframax)' 선형 공사 분야에서 러시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 러시아서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즈베즈다-현대와 기술지원 협약



현대삼호중공업은 포스코와 지난해 7월, '이중 두께 철판(Step Plate)'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시제품 현장 테스트에 들어갔다.

'이중 두께 철판'은 용접 없이 두께가 다른 철판을 하나의 철판으로 만드는 '신개념 철판'이다. 선박을 건조할 때 파도의 힘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에는 두꺼운 철판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얇은 철판이 사용되는데, 서로 다른 두께의 철판 용접 시 작업 공간을 많이 차지해 후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품질 불량 위험이 높아 작업자들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3월, 현대삼호중공업이 포스코에 기술 개발을 제안하면서 '이중 두께 철판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병목 공정이 해소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불량 발생 가능성이 사라져 품질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현대삼호중공업은 곡(曲) 외판 성형 작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곡(曲) 외판 전개 검증 프로그램 및 곡 외판 곡량 제작 정보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였다. 이로써 곡 외판 전개 형상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선조치하고 비숙련자도 곡 성형 작업 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곡량정보로 인해 형상 파악이 한층 용이해져 오작 예방, 공수 절감 등 고품질의 부재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스코와 '이중 두께 철판' 개발 곡(曲) 외판 성형 제작에도 참여



### ‘1+1=∞’ 시너지로 힘 받는 글로벌 기업들

다양한 브랜드를 연결하는 컬래버레이션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Apple)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애플워치 에르메스 모델을 출시했다.

에르메스의 베스트셀러 디자인을 차용해 완벽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스마트 워치를 출시한 애플은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 기기는 투박하고, 못생겼다는 편견을 깨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본래 기능만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전략적 제휴다.

오랜 전통을 가진 스포츠웨어 브랜드 휠라(FILA)도 브랜드가 가진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 젊은 층의 스트리트 패션 문화를 조합해 새로운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일본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해브 어 굿 타임(Have a Good Time)’과의 컬래버레이션뿐만 아니라 식음료 업계와의 색다른 만남도 주저하지 않았다.

시원한 탄산음료 ‘펩시(PEPSI)’, 빙그레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이미지를 결합해 스포티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의류 컬렉션을 만들어낸 휠라는 지금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 콜라보(Collabo)로 제 2의 전성기 부른다

점점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타 업계와의 제휴로 전통적인 브랜드의 제 2 전성기를 이끌어 낸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 Collaborat

한편, 화장품 업계에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명 디자이너나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자극하고 있다.

‘더페이스샵(THE FACE SHOP)’은 카카오 프렌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인기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 시트, 핸드크림, 쿠션 팩트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헤라(HERA)도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아트 컬렉션을 판매하면서 소장 가치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프랑스 최고 디저트 브랜드인 ‘위고 에 빅토르(Hugo&Victor)’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느낌의 화장품 라인을 출시하면서 각광을 받았다.

#### ‘콜라보’, 왜 이렇게 유행일까?

이처럼 다양한 글로벌 업계에서는 이색적인 브랜드와의 만남을 통해 소비자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업계 콜라보를 통해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한정 판매를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크게 자극해 매출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완전히 다른 업계와의 콜라보는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선하고 참신한 컨셉을 찾아내는 계기가 된다. 기존 제품의 단점을 콜라보 브랜드의 장점으로 가릴 수 있고 기존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색다른 느낌으



THE FACE SHOP  
NATURAL STORY ×  
**KAKAO**

로 전달 할 수 있어 소비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SNS 인증문화는 한정판 상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빠르고 경쟁적으로 확산시킨다. 콜라보 제품의 출시 및 판매만으로도 SNS를 통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만큼, 실리를 찾는 기업들의 전략적인 콜라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콜라보’를 내부의 인력과 자원에서 성장의 한계가 있을 때 다른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더 넓은 스펙트럼을 바라보는 계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콜라보를 경기불황으로 가열된 시장경쟁 속에서 업체들이 안정을 추구하며 선택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통과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콜라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 1년도 안 돼서 유행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신제품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 없이 콜라보라는 쉬운 길을 따라간다면 자칫 기존 브랜드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핵심제품 개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만드는 나만의 경쟁력”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과거에만 의존하면 뒤처지기 쉬운 시대다.

자고 나면 신기술이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자기계발은 유일한 대응전략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성공비결이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은 새로운 지식 습득과 기술 향상을 원하는 사우들을 위해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우들은 자신의 직무능력과 숙련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 기능경진대회·기술자격검정 준비로 ‘활기’

오는 10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개최되는 ‘2017년 현대중공업 사내기능경진대회’가 벌써부터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이 일과 이후 사내 실습장을 찾아, 실기 연습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는 현대중공업은 물론 분할회사, 협력회사 사우들이 참가해, 용접, 전기공사, 도장, 해양설계(이상 개인경기), 제관조립, 배관조립, 선체설계, 의장설계(이상 단체경기) 등 8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기능경진대회는 지난 1981년부터 꾸준히 개최된 이후로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고 사우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사우들은 대회를 준비하며 생산기술을 반복 연습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한다.

두 차례의 도전 끝에 2015년 전기공사 종목에서 우승한 김병철 사우(39세, 현대중공업 NASR AP 공사부)는 지난 기능경진대회를 회상하며 “연습기간 동안 매일 3시간씩 과제물

을 제작했는데, 동료의 피드백을 받으며 내 실력을 한 단계 성숙시킨 기회였다”고 말했다.

9월 중순 필기시험이 예정된 ‘사내 기술자격검정’(명인, 1~3급)도 현대중공업 사우들이 전문성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로 사랑 받고 있다.

2017년 8월 말, 명인 53명을 포함 총 5천500여명의 사우들이 사내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험응시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내 기술자격검정은 지난 1982년부터 취부사, 배관사 등 14개 종목에 걸쳐 운영돼왔고, 지난 200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정자격으로서 공인력을 얻었다.

이 자격은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접 등 2~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야만 취득할 수 있는데, 최고 등급인 명인은 현대중공업 기능인에게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 다양한 직무교육,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

현대중공업그룹 사우들은 현업자율직무교육과 야간자율직무교육 등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다. 이 교육은 지난 2009년 처음 개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5만5천여명(누적인원)이 수강했다. 현업자율직무교육은 현업 부서에서 스스로 5명 이상 학습팀을 구성하고,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생동감 넘치는 강의를 진행한다. 업무상 필요한



전문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서로의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어,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야간자율직무교육은 산업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 과정을 비롯해, 연간 70여 개의 실무형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속재료 기본역량 강화 과정', '선박 기본의 이해'는 일반 사우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 각계각층의 수강생을 보유한 인기과목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과 기술교육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각각 기능장 필기와 실기수업을 진행하며, 사우들의 기술자격 취득 열풍을 이끌고 있다.

2012년 입사 이후로 현재까지 회사에서 24개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며 최다 수강생에 오른 전소영 대리(28세, 현대중공업 종합설계부)는 "학교에서 알기 힘들었던 실무지식과 최신 기술동향을 손쉽게 배워, 회사 교육 프로그램을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들은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하이이캠퍼스(www.hiecampus.co.kr)'를 통해 경영일반, 전문직무, 어학교육 등 635건의 인터넷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고 있다. 2003년 처음 선보인 이 시스템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우들의 자기계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독서통신교육도 운영돼, 사우들의 학습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공과대학서 학위 취득 가능

지난 2013년 개교한 현대중공업공과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2년제 대학으로 졸업과 동시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하려는 사우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 학년마다 30명으로 구성된 이 대학은 조선해양학과와 기계전기학과 등 2개과를 운영하며, 사외 전문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체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재학생들이 현대중공업 재직자에서 그룹사, 협력회사 직원들로도 확대됐다.

배움을 향한 사우들의 의지가 남달랐던 덕분에 현대중공업그룹도 우수한 기술인재를 폭넓게 확보하며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만일 스스로가 공부의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배움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2년 전 판금 종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 철골구조물 종목에 재도전한 조성용 사우(22세)는 와신상담의 각오를 전했다.

지난 대회에서 원현준 사우에 밀려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던 그는 “고등학교 선배였던 원현준 사우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간의 마음 고생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조성용 사우가 출전하는 철골구조물은 도면을 보고 철판과 파이프 등을 가공해 과제물을 만들어내는 종목이다. 치수가 정확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대표 3인방 중 가장 경험이 많고, 꼼꼼한 성격인 조성용 사우에게 주변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6년간 최고 기능인을 목표로 달려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 받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믿음에 보답하는 국가대표 되고파 ...**

CNC선반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부품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종목으로, 국내와 국제대회의 사용 장비가 다르다. 이에 허구민 사우(20세)는 국내·외를 오가는 훈련 속에서 장비 숙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힘든 훈련에도 미소를 잃는 법 없이, “선수들만큼이나 고생하시는 교사님들 그리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현대중공업 사우분들을 위해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가대표가 되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허구민 사우의 어릴 적 꿈은 현재 진행중이다.

국제기능올림픽 주인공은 바로

**나 야 나**  
[Pick Me]



오는 10월 14일(토)부터 19일(목)까지 7일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현대중공업 사우 3명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주인공은 조성용(철골구조물), 허구민(CNC선반), 김형욱(배관) 사우로, 이들은 폭염의 날씨 속에서 휴가도, 휴일도 반납한 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고의 기량과 그 기량을 뒷받침하는 하는 성실함으로 당당히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로 선발된 이들을 사보편집실에서 만나보았다.

▼ 왼쪽부터 허구민, 조성용, 김형욱 사우



## “지면 억울할 만큼 훈련할 겁니다!”

뛰어난 실력은 물론  
훈훈한 외모까지 겸비한 김형욱 사우(20세)는 이번 대회 배관종목에 출전한다.



배관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가정용 배관의 제작 능력을 겨루는데, 이번 아부다비 대회에서는 중동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해 태양열을 활용한 온수 공급 설비를 제작하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김형욱 사우는 “전 세계 기술력의 상징인 태극 마크와 현대중공업 마크를 동시에 달고 대회에 나갈 수 있어 영광스럽다”는 출전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뒤 배관과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을 쌓아 우리나라 배관 분야의 장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커져가는 부담감을 떨기 위해 선수들은 요즘 더욱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음을 선수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나라와 회사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오늘도 자신과의 대결을 펼치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배영준 지도교사가 조성용 선수에게  
“성용아, 고된 훈련에 힘들 텐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잘 따라주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육현규 지도교사가 허구민 선수에게  
“구민아, 얼마 남지 않았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보자!”

이형규 지도교사가 김형욱 선수에게  
“다른 어떤 이유보다 ‘김형욱’이라서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연습한 만큼 그리고 땀 흘린 만큼 아부다비에서 보여주고 오자!”

“미래를 예측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길”

박종현 대리(36세, 현대미포조선 사업기획부)

##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 꿈을 현실로 만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흐르지 않고, 고이는 것은 결국 썩어버리기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도전하며 미래를 개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보편집실에서는 부단한 노력과 자기계발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자신의 경쟁력을 쌓아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사우들을 만나 보았다.

“설계 기술 고도화를 꿈꾸며,  
‘화공기술사’ 취득”

박정호 과장 (35세, 현대중공업 해양프로세스설계부)

저는 나이지리아 오펜(OFON), 미얀마 셰(SHEW), UAE 나스르(NASR)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해양플랜트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란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정 설계 및 장비 계산에서 실력을 키워야 회사와 저 개인의 경쟁력이 선다고 생각해, 화학공학 분야 최고 등급의 국가공인 자격인 화공기술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화공기술사는 최근 2년간 필기시험 합격자가 6명에 그칠 만큼 취득이 까다롭습니다. 관련 자료도 너무나 부족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조차 어렵죠.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에서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자료를 구매하기도 했는데, 해당 자료가 인터넷 검색 내용을 짜깁기 한 수준이라 마음 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은 자료 확보와 정리에 공을 들였고, 그 후 1년 본격적인 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2~3시간씩, 주말에는 반나절 이상, 2년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야근 및 화식을 모두 참석하며 공부를 하기란 정말 힘들었지만,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는지 올해 화공기술사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험을 위해 정리한 서브노트와 제 나름의 노하우를 엮은 화공기술사 준비 서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FLNG 독자모델 개발, Feed 설계 준비 등 설계 기술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플랜트가 신규 수주될 날을 꿈꾸며, 저도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등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꿈'이라 생각했던 신기술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경영 분야 석사 과정을 밟으며 배웠던 신기술들을 우리회사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꿈과 현실은 달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라도 회사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지난해 7월에는 독일 아헨공과대학교를 찾아가 제조업의 미래와 성장 전략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올해 1월, 새로 신설된 경영기획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곳에서 동료들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발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한 의장품 어셈블리 운영시스템'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책과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년 뒤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 선박 설계에 3차원 정보기술(3D)이 도입돼 우리회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스마트팩토리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꿈이 현실화 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저는 최근 마라톤 코스 중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1천467km 울트라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해남 땅끝 전망대에서 출발해 골인 지점인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밤낮으로 달리기에 열중한 덕에, 6일이 넘는 대장정 속에서 기존 시간보다 3시간을 빠르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슬램 달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횡단 코스, 2012년에 종단 1개 코스(태종대~임진각)를 완주하고 2013년에 나머지 종단 코스(땅끝~고성)에 의욕적으로 도전했으나 100km 지점에서 부상으로 실패했습니다. 2015년에도 재도전했지만 400km 지점에서 컷오프(시간 미달) 돼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라톤 완주를 위해 매일 목포집에서 회사까지 달리면서 체력을 단련 했습니다. 남들은 '왜 이렇게 혹독한 코스를 뛰냐며' '힘들지 않냐'고 한마디씩 건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기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완주한 제 모습을 상상하고 그로 인해 '꼭 달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다시금 불타오릅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실패와 고비도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면서 저만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강렬했던 '완주의 기쁨'을 잊지 못해 저는 다시 도전장을 냅니다. 이번 승부에도 저 자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들 지켜봐 주세요!

## “내 안의 나를 이기는 짜릿한 승부”

조효훈 직장(58세, 현대삼호중공업 선행도장부)



## 선박의 탄생, **‘첫 단추’**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과 같이 모든 일은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도 좋은 법이다.  
선박도 그렇다. 성공적인 선박 건조를 위해서는 선박 제조의 ‘첫 관문’을 무사히 넘겨야 비로소 완벽하고 튼튼한 선박이 탄생한다.  
어찌 보면 선박의 ‘첫 단추’를 책임지는 강재팀이 선박의 운명을 결정짓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꼼꼼함’과 ‘세심함’은 우리의 무기

27명의 팀원들로 구성된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강재팀은 국내·외에서 생산된 선박 제작용 강재를 안전하게 하역하는 작업부터 적치, 선별, 출고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사용하는 선박 제작용 강재는 일주일 기준 평균 1만8천 톤에 이르는데, 언로더 크레인(Unloader Crane)을 통해 강재를 적치장으로 하역하는 것에서부터 강재팀의 업무는 시작된다.

이후 강재를 전산에 등록하는 적치 작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불량 강재를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불량 강재는 자칫 선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강재팀은 산업용 핸드 단말기를 통해 전산자료와 실물을 꼼꼼히 비교하며 강재 선별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한편, 발주한 강재는 특별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입고되므로 우천시, 강재 표면에 녹이 스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강재팀은 녹 방



지를 위해 강재적치장에 쇠석(큰 옥석을 파쇄하여 만든 자갈)을 깔아, 선박이 건조되는 오랜 기간 동안 강재의 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오승섭 팀장(47세)은 “고품질의 강재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힘찬 각오를 전했다.

### 뛰어난 기술력·안전 작업으로 ‘에이스 팀’ 등극

현대삼호중공업 강재팀은 거대한 오버헤드 크레인(Overhead Crane)을 활용해 선박 건조 일정과 제공되는 선박 부위에 따라 강재를 분류하고 있다.

오버헤드 크레인은 7개의 마그네틱 포트(Magnetic Port/자석)로 이뤄져 있는데, 최대 20톤의 강재까지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다. 강재의 거대한 무게만큼 선별 적치 작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7개의 마그네틱 포트가 모두 동일한 세기를 가져야 작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강재팀의 ‘꼼꼼함’과 ‘세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마그네틱 포트의 세기가 제각각일 경우, 강재의 추락으로 인해 품질 손상은 물론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팀원들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작업에 몰두한다.

후공정 일정에 따라 선별된 강재가 롤러 컨베이어(Roller Conveyor)를 통해 가공공장으로 공급되면, 비로소 가공부 강재팀의 업무는 끝이 난다.

한편, 강재팀은 뛰어난 안전 활동으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가장 안전한 팀으로 손꼽히고 있다. 오승섭 팀장은 “효율성, 정확성, 신속성 등 작업에 중요한 요소는 많지만 그 중에서 팀원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재팀원들은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팀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 수칙을 제창하고 안전 장구류를 함께 확인하며 작업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한다. 이처럼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강재팀은 사내 ‘무재해 사고’ 18배수를 달성하기도 했다.

### 최고를 꿈꾸며, 끝까지 달린다

강재팀은 평균 근속년수가 20년으로, 동료의 얼굴 표정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가까운 곳으로 등산을 하거나 체육행사를 열며 팀원들간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매년 팀원들의 생일이나 경조사도 잊지 않고 챙긴다.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는 이들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훈훈하다.

업무면 업무, 단합이면 단합,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 강재팀에게도 이루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강재 로트(LOT/그룹)별 연속 출고의 실현이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제조사별로 납기 기준에 따라 입고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 로트 단위의 적치 선별 작업은 강재 입고 방법 및 설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강재팀에게 연속 출고는 후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인 것이다.

이에 강재팀 일원은 “설비 투자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과감히 목표치에 도달하겠다”며 밤낮없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종민 차장(48세)은 “앞으로 현대삼호중공업 강재팀이 최고라는 칭찬을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며 끝까지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도 모두 잘못 끼워지게 마련이다. 위풍당당한 자태로 온 세상을 누비게 될 선박에 첫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강재팀. 멋진 ‘첫 단추’로서 활약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본다.

## 더 빠르고 편리한 업무 처리,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에 성큼!

지난 2008년 구축된 현중오피스가 지난 8월 21일(월) 그룹웨어 'Hi오피스'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자결재 활성화 및 빠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신규 도입돼 한층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한 업무 처리를 위해 도입된 'Hi오피스'의 다양한 기능을 함께 살펴보자.



### | 할 일을 알려주는 똑똑한 알림, 'To Do List' |



여러 업무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공문이 수발되었는지, 보고서의 결재가 끝났는지, 업무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지 못하고 깜빡 잊어버리거나 넘어가 버리기 십상이다. 그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알림'. 'To Do List'는 자신에게 온 알림을 보여주고, 전자결재, 통합게시, 일정관리, 전자설문, 투표, 시설 예약, 포탈 등으로 구분해 선택된 업무에 한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 사용 방법

우측 상단의 서버 메뉴에서 '중'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To Do List' 조회 가능

### | 결재자 부재중일 땐, '후결(後決)' |



급히 결재를 올려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상위 직책자가 부득이 출장,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워 곤란한 적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그러나 Hi오피스에는 전자결재에 '후결' 기능이 추가돼 결재자의 부재 시에도 급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가령 부서장의 부재 시, 직책과장의 선 승인으로 현업 부서에서는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부서장은 '후결'하면 된다.

※ **후결**: 결재선을 지정할 때 특정 결재자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제일 마지막에 결재할 수 있도록 설정. 후결자는 본인의 결재 순서 때 결재하지 않고, 문서가 완료된 후에 승인.

#### 사용 방법

결재 양식을 열어 [결재선] 버튼 클릭 → 결재선 팝업창에서 결재자를 추가한 후 [종류]를 일반결재에서 후결로 변경

엑셀, 워드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러 부서, 팀 간 업무를 취합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 경우 메신저 및 메일 등으로 업무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문서관리시스템에 편집 권한 있는 ECM문서로 해당 파일을 등록하면, 오피스 온라인(Office Online) 상에서 다수 인원이 실시간으로 파일을 읽고 내용을 입력, 수정 및 공동 편집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사용 방법

ECM사이트에서 '업로드' 또는 드래그앤드롭(Drag&Drop)으로 파일 등록 → 편집 권한 있는 문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Online에서 열기] 클릭 → 오피스 온라인(Office Online)에서 문서 편집 → 인터넷 창 닫으면 자동 저장됨

### | 엑셀, 워드 파일 등 실시간으로 문서 공동 편집 |



문서관리시스템(ECM)의 기능이 대폭 확대돼, 중요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통합 검색' 기능은 전문가 조회, 전자결재, 게시판, 협업공간, ECM, H스퀘어, 소장도서 등의 항목에서 결과를 필터링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준다. 특히 개인별 저장된 담당 업무, 보유지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별 담당자 찾기가 한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메인 화면에서 [임직원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에 속해있는 10곳의 회사 조직도를 볼 수 있어 그룹사 임직원(사용자)의 업무 연락처 찾기가 쉬워졌다.

#### 사용 방법

메인 화면의 상단 검색바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 → 그룹웨어 전체 검색에 대한 결과가 새창으로 표시됨

### | 담당 업무, 전문가 찾기 쉬워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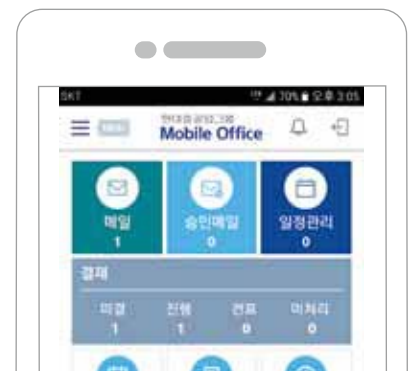


사무실 밖에서 메일, 결재 등 급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도 업그레이드 되었다. 기본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모바일에서 결재할 수 있는 양식, 조회할 수 있는 게시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H스퀘어, 커뮤니티, 시설예약, 전자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하게 되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 사용 방법

HEO에서 결재 메뉴에서 모바일오피스 사용 신청서 기간 및 결재 승인 → 터치원 모바일 어플, MDM 보안프로그램 설치 → 통합인증 사번, 암호로 터치원 접속 (통합게시 - Help Desk - 활용팁 - 터치원 모바일 프로그램 소개 및 설치 안내 참고)

### | 더욱 스마트해진 '모바일오피스' |



샐러던트(Saludent)는 공부하는 직장인을 뜻하는 신조어다.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공부나 시험과는 '안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학생들처럼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지난 5월 자산운영과로 발령받은 현대미포조선 총무부 김은광 사우(27세)는  
 '부동산'이라는 낯선 개념과 부딪히며,  
 2주가 넘는 긴 여름휴가 동안 '부동산학개론'을 완전 정복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 부동산학, 꼼짝 마!



## 1 일차

### '특별 암기법, 감사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모두 21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벌써 7강을 시작하는군요.  
 첫 날부터 오전에 3시간 동안 3개의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3시간 동안 복습을 하는데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그런지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강사님이 알려주신 암기법 덕분에 공부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특별 암기법에 따라 외우고 예제를 풀어나가니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됐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김은광 사우의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 2 일차

### ‘탄력성이란?’

오늘은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탄력성은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이라는 수학적 기초에 부동산의 개념을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좀 열심히 할 걸’하는 약간의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프와 수학 공식도 보니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 3 일차

### ‘특별 암기법, 감사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모두 21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벌써 7강을 시작하는군요.

첫 날부터 오전에 3시간 동안 3개의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3시간 동안 복습을 하는데 오랜

만에 하는 공부라 그런지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강사님이 알려주신 암기법 덕분에 공부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특별 암기법에 따라 외우고 예제를 풀어보니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됐습니다.



## 4 일차

### ‘열공한 나, 칭찬해’

오늘은 공식도 많이 외우고, 생소한 내용도 많아서 복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공식들이 ‘부동산에 투자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기초

를 두고 나온 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면지에 공식을 여러번 쓰고 읽으며 외웠습니다.

열공한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지는 하루였습니다.



## 5 일차

### ‘탁상공론은 저리가라~’

오늘은 부동산 금융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연결되네요.

정부가 다주택자의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보았거든요.

공부한 내용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을 보니, 마치 공부한 것이 시험에 나온 것처럼 기쁩니다.



## 6 일차

### ‘보고서가 새롭게 보인다!’

자산운용과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의 자산재평가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어떻게 우리회사 자산들의 가치를 매기고 적정가격을 산정했는지 자세

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서, 읽으면서도 ‘가격이 얼마다’라는 결과만 보았을 뿐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었죠.

오늘 배운 감정평가 기초내역을 익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보고서가 새롭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저절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7 일차

### ‘도전을 마치며’

21개 강의의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끝으로 7일간의 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강사님이 머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도전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도전기간 중 게으름 피우지 않고 계획대로 실천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이번 도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낯설었던 부동산학에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네요.





## 무더위도 잊은, ‘이웃 사랑’ 실천

7월과 8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현대중공업그룹의 여러 봉사단체들은 더위를 이겨내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봉사에 앞장 선 사우들에게는 이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 요트 체험 등 장애우들과 여름 나들이

햇볕이 따갑던 7월 20일 오후, 현대중공업 사우들이 평소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나무 그늘을 따라 울산 동구 염포산으로 가벼운 산책에 나섰다. 이날 나들이에 함께 한 박재영 대리(33세, 현대중공업 특수선시운전부)는 “산비람이 어느 때보다 상쾌했고, 작은 도움에도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고마워 해, 다음날까지 마음이 훈훈했다”고 말했다.

봉사에 나선 이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일렉트릭에 입사한 경력사원, 40여명의 경력사원들은 울산참사랑 의집과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불우이웃들의 일일 친구가 돼줬다.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의 야외활동을 돕는 것은 물론, 시설물 곳곳을 청소하고 이불과 옷가지 등을 빨래하며 보람찬 시간을 가졌다.

한편,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낸 현대중공업 가족들도 있었다.



현대중공업 봉사단체인 손사랑회는 8월 19일(토) 울산 일산 해수욕장에서 현중 요트회와 함께 해진원(울주군 중증 장애인요양시설) 아동을 초청한 가운데, '요트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날 20여명의 사우들은 장애아동들과 1대 1로 짝을 지어, 요트를 타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바닷바람을 만끽했다. 아울러 장애아동들을 위해 폴장을 준비하고, 물놀이를 하는 등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손사랑회는 지난 2010년 해진원 아동들과 일산해수욕장으로 여름소풍을 떠난 것을 계기로 7년째 요트 체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현대삼호중공업 봉사단체인 '사랑이 있는 푸른 세상'도 7월 22일(토)과 23일(일) 전남 무안군에서 '제16회 한마음 여름캠프'를 열어, 소아암 환자·가족들을 대상으로 댄스,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무더위를 식혔다.

또, 현대삼호중공업 사우들은 8월 23일(수)과 24일(목) 양일간 단채현혈에 나서며, 혈액 부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돕기도 했다.

### 사내 전우회, 지역민들의 피서 도와

현중 특전동지회와 상륙봉사회 등 사내 전우회도 피서철에 더욱 분주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특전동지회는 하기휴가가 시작되던 7월 29일(토) 울산 주전항에서 대대적인 수중 정화활동에 나서,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스티로폼 등 4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해수욕장에서도 사내 전우회의 활약이 이어졌다. 앞서 특전동지회는 7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사흘간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린 '2017 울산조선해양축제'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지역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묵묵히 이어갔다. 또 해병대 전역자로 구성된 상륙봉사회는 수상구조, 응급처치 등의 재능을 살려 7월 28일(금)부터 8월 15일(화)까지 일산해수욕장에서 민간 구조대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상륙봉사회는 익수와 같은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해상 순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청소년 선도와 미아 찾기, 수변 정화활동 등도 펼쳤다. 지난 2016년 울산 동부소방서로부터 시민수상구조대에 임명된 상륙봉사회는 매해 여름철마다 일산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구조대원 활동에 나선 천성권 사우(45세, 현대중공업 조선생산지원부)는 "휴가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조금 고생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역 시민들을 보면 피서 못지 않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룡회(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해병대 전우회)는 7월 27일(목) 해양사업본부 담장을 따라 약 1톤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현대미포조선 봉사단인 초롱회는 오는 9월 23일(토)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원에서 '장애우 초청 바다 투어' 행사를 열어 70여명의 장애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간의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각자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면, 잠깐의 수고로 움만으로도 지역 사회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년 여름에는 더 많은 현대중공업 가족들이 사내 봉사단체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피서를 보내기를 추천한다.

## 효율·안전 모두 잡는, 열정 가득한 ‘젊은’ 연구실

화공시스템연구실은 조선, 해양플랜트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됐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화공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각 사업부, 발주처,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과 활발히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품격 있는 연구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박상민 책임연구원

### 부서장 인사말

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이 발전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조직의 발전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성과에 눈이 멀어 자칫 연구원들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찰이 부족하여 잘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녀, 형제, 부모라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부서 업무 소개

### 공정설계연구팀

조선, 해양플랜트 화학공정 프로세스의 기본 토대를 잡는 개념설계부터 설계를 구체화하는 상세설계 그리고 시운전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일&가스 플랜트의 해저-해상 통합설계기술 개발, 해저생산플랜트의 유동 건실성(Flow Assurance) 연구, 해양플랜트 톱사이드(Topside) 가스 전처리 프로세스의 동특성 연구, 극저온 증류 분리공정 개발, 부유식 LNG 플랜트(FLNG, FSRU) 프로세스 개발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 및 엔진기계사업본부와 함께 글리콜 간접가열방식 재기화 시스템(Hi-ReGAS)을 개발해 우수성과 즉시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플랜트사업본부와 협업하여 연안용(Near-Shore) FLNG와 FPSO의 톱사이드 표준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 안전신뢰성연구팀

조선, 해양플랜트의 위험성, 신뢰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위험성, 신뢰성과 관련된 전문 해석연구(Special Study)를 주로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FSRU, LNG선과 같은 LNG 운송 선박과 특수선 분야 그리고 엔진 산업에 이르기까지 현대중공업의 다양한 사업군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뢰성 분야에 관심 있는 사업부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아리 소개

### 킵핑 볼링회

#### 함께 하는 시간만큼 쌓이는 팀워크!

지난 2016년 사내에서 볼링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볼링을 거의 쳐 보지 않은 두 명이 선수로 뽑히게 되었는데 실력은 부족했지만, 열혈결에 1회전을 통과하는 기적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비록 2회전에서 탈락했으나 이 대회 덕분에 저희 연구실에서 볼링 열풍이 불면서 볼링 동아리가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격주로 모여 볼링 연습을 하는 등 실력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동아리 결성 1주년을 기념해 단체 티셔츠도 맞췄습니다. 여전히 실력은 부족하지만, 부서원들과 업무 외에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팀워크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영어회화 동아리(APEX)

####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은 학구열!



해외 연구기관과의 잦은 미팅과 전화회의에 대응하고자 만든 영어회화 동아리(APEX)가 어느덧 결성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회원들 모두 꾸준히 노력해, 회원들의 토익 평균 점수는 950점을 넘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부쩍 늘었습니다. 화공시스템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울산과 용인에 흩어져있지만, 저희 동아리는 매월 화상연결을 통해 영어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등 지역에 흩어져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연결하며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 신입사원 한 마디

#### 황새봄 연구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억들은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설렘'에서 비롯됩니다. 학창시절 새로운 반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내던던 첫 발걸음, 첫 이성친구와의 첫 데이트에서의 두근거림, 사회인이 되기 위해 처음으로 면접을 보던 날의 떨림 등이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첫 직장'의 소중한 기억을 현대중공업 화공시스템연구실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력 있는 선배님들과 항상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이 있는 멋진 팀에서 일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준 현대중공업과 화공시스템연구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은 미숙하지만 앞으로 더욱 빛나는 새내기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 “목숨을 구해준 은혜, 주변에 알리며 갚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가만히 서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  
유난히도 길었던 올 여름을 평생 잊지 못할 이가 있다. 바로 사우  
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설동열 반장이다.  
유기용 기원과 김영수 직장의 손을 움켜잡고 연신 고맙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건네는 설동열 반장의 모습에 보는 이들의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 ‘안전 골든타임’ 지켜낸 심폐소생술

지난 6월의 마지막 날, (주)광림이엔지에 근무하는 설동열 반장  
(52세)의 하루는 여느 날과 다름이 없었다. 더운 날씨에 고생  
하는 동료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며 작업현장을 둘러보던 그는  
퇴근 무렵 마무리 정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 길이었다.  
공장을 향해 몇 걸음을 떼지 못한 그 순간 갑자기 ‘핑~’하는  
이명이 들리며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설 반장의 기억은 거  
기까지였다. 저혈당으로 인한 급성 쇼크가 발생한 것.

왼쪽부터 유기용 기원, 설동열 반장, 김영수 직장



설동열 반장은 “눈을 뜨자 울고 있는 아내와 막내딸이 보였다”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쓰러져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고 당일 도로 위에 쓰러진 그를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김영수 직장(49세, (주)노일)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중이던 김영수 직장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며 걷고 있는 설 반장을 발견했다. 이상한 느낌이 든 김 직장이 도로 한 켠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뜨겁게 달궈진 도로 위로 설 반장이 고꾸라졌다.

김영수 직장은 “검게 그을린 팔과 달리 설 반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었고, 호흡도 약했다”며, “가만 두면 죽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고, 긴급했던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직장은 반사적으로 회사 안전교육시간에 배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먼저 설 반장의 기도를 확보하고 옷을 풀어헤쳐 혈액순환을 도왔다. 심장 위치에 손을 포개어 올린 뒤 있는 힘껏 눌러주는 흉부압박에 이어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동시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회사 안전요원인 유기용 기원(47세, 현대중공업 조선안전부)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 직장은 사람들에게 빨리 유 기원을 데려와 달라고 소리쳤다.

교통지도 중이던 유기용 기원은 소식을 듣자마자 전력을 다해 현장으로 뛰어갔다. 재빨리 상황을 파악한 유 기원은 김영수 직장을 대신해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유 기원은 구조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통합관제센터로 연락해 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 발생 15분, 설 반장의 혈색과 호흡이 점차 돌아오고 있었다.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응급처치가 사고자 안전의 골든타임을 지켜낸 것이다.

####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따름”

사고 당일 고온다습한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긴 했지만, 퇴근 후 틈틈이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온 설동열 반장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탈수 증상은 생각지도

못한 저혈당 쇼크로 이어졌다. 더위를 머금고 열기를 내뿜는 도로 위에 쓰러졌기에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설 반장은 MRI와 CT 등의 정밀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해 전보다 더욱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설 반장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주변에서 도움을 준 다른 사우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기용 기원과 김영수 직장도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사우들이 모두 제 일처럼 달려와 도움을 줬 빠르게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다며 입을 모았다.

이어서 유기용 기원은 “사우들이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동료들 걱정을 하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며,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 온 끈끈한 우정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사내 안전교육과 든든한 동료애가 빛을 발해 소중한 동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가슴 따뜻한 선례였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hi'에서 만나 보세요!



##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기자재 부문’ 강자로 성장

(주)동화엔텍(대표이사: 김동건)은 1984년부터 30년 넘게 현대중공업과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기자재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선박용 열교환기 분야에서는 세계 2위 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안팎으로 상생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 독보적인 기자재업체로 성장했다.

### 열교환기 사업서 1천400억 연매출 기록

동화엔텍은 △1억불 수출탑 달성(2008년)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 선정(2014년) 등에 빛나는 중견기업이다.

1980년 부산 영도에서 ‘동화정기’란 이름으로 선박 수리사업을 시작했고, 1984년 독일 서크(Serck)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본격적인 열교환기 생산에 들어갔다.

열교환기는 크게 가열기(Heater)와 냉각기(Cooler)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엔진이나 발전기, 스팀 보일러 등 다양한 장비에서 온도를 높이거나 식히는데 활용된다. 동화엔텍은 총 40종의 제품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부산 녹산공장(송정동/5천평)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동화정기’에서 ‘동화엔텍’으로 변경했다. 엔텍(Entec)은 환



경(Environment), 설계(Engineering) 그리고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열교환기는 수익이 아닌 기술 산업”이라는 경영철학을 반영했다.

동화엔텍은 지난 2002년부터 LNG 기화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며, 과감한 사업 확장에 나섰다. 지난 2005년 공장 내에 용접자

동화 설비를 도입한데 이어 2013년 제 2공장인 화전공장(화전동/6천평)을 잇달아 준공했다.

이로써 열교환기를 연간 2만대에서 4만대 규모로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2000년 360억원이었던 매출액도 2016년 1천429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07년부터는 영국 롤스로이스, 부산대학교와 함께 차세대 항공 가스터빈용 열교환기를 개발하며,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





해 9월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를 마치고, 항공 시험 등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관련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 현대중과 기자재 국산화에 협력

동화엔텍은 지난 1992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1993년에는 선박용 조수기(Fresh Water Generator/바닷물을 정제해 깨끗한 물을 얻어내는 장치)의 독자 모델을 출시했는데, 당시 현대중공업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동화엔텍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들의 조수기 제품을 선박에 처음 탑재했다. 동화엔텍의 창업자인 김강희 회장은 “조수기 개발 단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실선 탑재를 위해 설계 준비에 나섰고,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동화엔텍으로부터 조수기를 비롯해 선박용 공기냉각기(Air Cooler), 에너지세이빙시스템(Energy Saving System)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며 성장 기틀을 마련해 왔다. 덕분에 이들 제품은 일본, 유럽 선진기업과 세계 1~2위를 다투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양사는 기자재 국산화에서도 끈끈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독자 개발한 ‘해수-글리콜(Glycol) 간접가열 LNG 재기화시스템’의 주요 설비를 동화엔텍에서 제작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액화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의 바닷물이나 프로판 가스 대신 응고점을 낮은 글리콜 혼합액을 열매체로 사용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동화엔텍은 최근 신형 열교환기(PCHE)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고,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이 제품은 일반형 제품보다 열전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크기를 1/10 이하로 줄였다. 한편, 이 제품은 각종 설비들이 밀집되는 LNG-FSRU에 탑재되고 있다.

### 29년 연속 무분규, 어떤 위기도 두렵지 않아

모범적인 노사문화도 동화엔텍을 성장으로 이끈 주요 요소다. 이 회사는 1988년 노조 설립 이후 29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직원 중심의 경영활동이 크게 한 몫했다.

동화엔텍 노동조합은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자발적인 임금반납을 통해 경영정상화 노력에 동참했고, 회사도 위기를 극복한 후 2000년 우리사주를 통해 지분을 직원들과 나눴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자녀장학금 제도와 2011년 탄력근무제를 각각 신설하며,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조선업 불경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1년간의 장기교섭에도 대화와 이해라는 원칙을 내세워, 지난 6월 임금 동결을 이뤄냈다.

또한 직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자체 품질개선활동인 DPS(Donghwa Production System)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공정지연과 자재낭비를 막아 약 13억원을 절감했다.

한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동화엔텍은 지역 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3천500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대한적십자사와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에 1억2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태형 이사는 “우리 회사가 주변의 지원 덕분에 크나큰 성장을 이뤘는데, 이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역 사회를 돕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력은 불가능한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징검다리다. 동화엔텍은 위기의 순간에 제 살길을 찾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소개하는 '세계를 가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사보와 함께 즐거운 세계 여행을 떠나 보세요!

## 원유·이슬람 성지·사막의 나라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Muhammad)가 태어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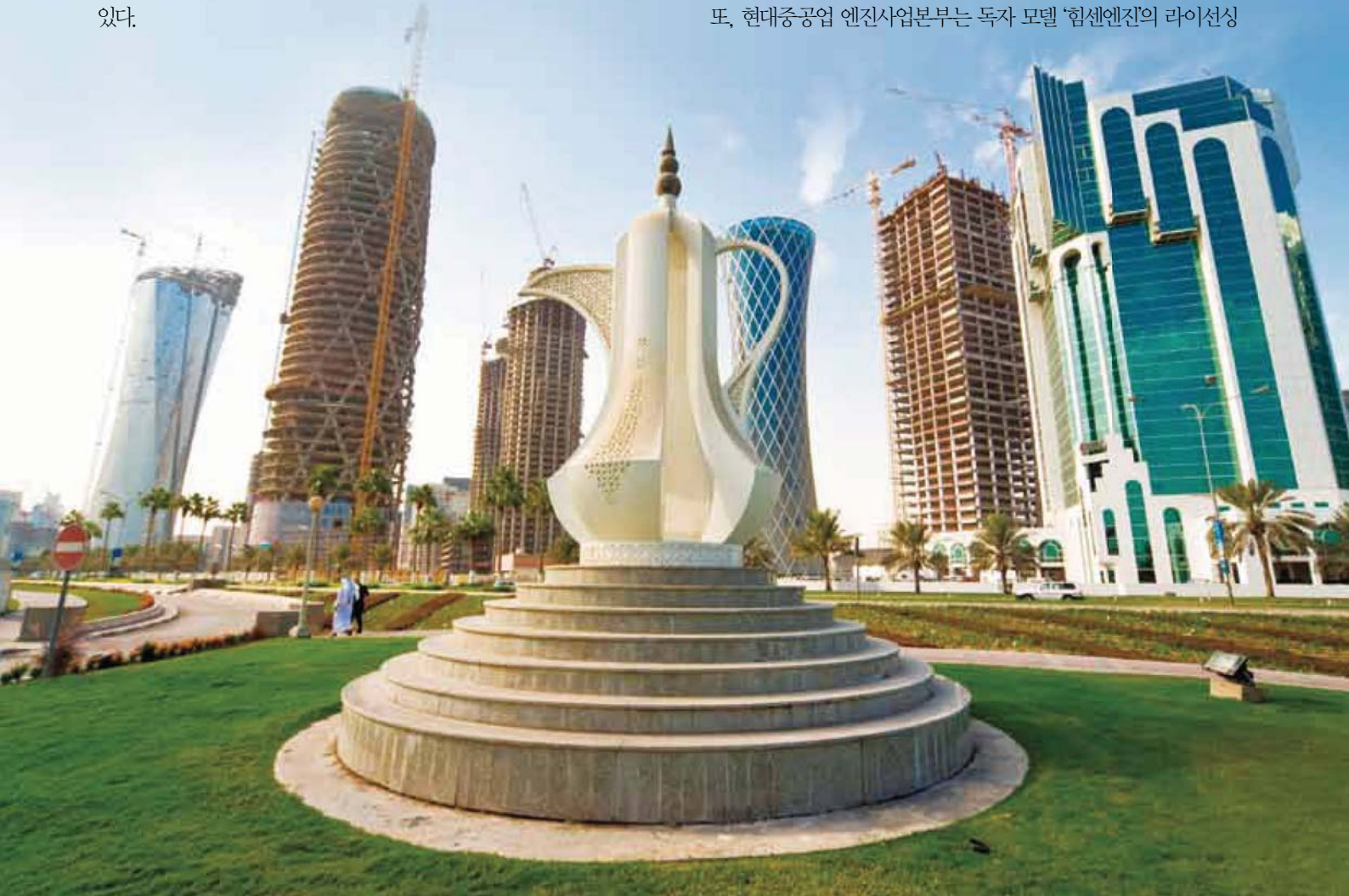
사우디는 아직까지 여행 목적의 방문이 불가능하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현대중공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현대중공업그룹의 많은 사우들이 이 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다.

### 주베일 인연, 40여년째 끈끈한 협력

현대중공업그룹과 사우디의 첫 만남은 4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우디의 국가적 사업이었던 주베일 항만공사(King Fahd Seaport)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총 57척의 선박을 사우디로부터 수주하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 국영 해운사 바리(Bahri)와 사우디 합작 조선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사우디 동부 라스 알 헤어(Ras Al-Khair) 지역에 150만평 규모의 합작 조선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본부는 독자 모델 '힘센엔진'의 라이선싱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며, 사우디와 엔진 합작사를 설립해 중동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업체 중 사우디전력청에 가장 많은 중전기(변압기, 초고압GIS 등) 공급 실적을 보유한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사우디전력청과 기술 및 제품 개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무슬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신비한 나라

사우디는 사업 협력 등의 목적으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이 입국할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사우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은 멋진 사막인데, 대표적인 관광지는 수도 리야드에서 2시간 가량 떨어진 붉은 모래사막이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색 모래 위에서 사륜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도 리야드의 중심가에 하늘과 맞닿은 마천루 '제다 타워(Jeddah Tower)'는 산유 부국 사우디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막강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건설 비용만 12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라파(828미터)보다 약 172미터 더 높이 설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에는 '정지순례의 꽃'이라 불리는 무함마드 출생지 '메카(Mecca)'가 있다. 아브라함(Abraham)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는 카바(Al-Kaba) 신전에는 매년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드는데, 전세계 무슬림들은 어느 곳에 있든 카바 신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메카(Mecca)



제다 타워(Jeddah Tower)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내온 이야기



이슬람 규율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우디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회 규칙과 문화가 존재한다고 한다. 리야드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성동훈 대리(33)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보자.

#### 신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우디만의 문화가 있나요?

사우디는 종교의 특성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령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엄격한 남녀 구별은 이곳에서의 관습이자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당에는 여성끼리 혹은 가족끼리 입장 가능 패밀리 섹션(Family Section)과 남성끼리만 들어갈 수 있는 싱글 섹션(Single Section)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편이나 가족 외의 남성에게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이슬람 문화와 관련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얼굴 가리개인 니캅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장소를 나누어 놓은 것이죠.

#### 문화 차이로 인해 낯설었던 경험이 있나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특히 사우디는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이 기도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사우디에 있는 모든 회사는 근로자의 기도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모든 상업시설도 기도시간에는 문을 닫고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참 낯설었던 것이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방위 훈련 때처럼 확성기를 통해 기도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는데, 이를 '아잔'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기도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 이 시간을 피해 고객과 미팅을 잡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곤 합니다.

#### 사우디의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주세요.

교민들 사이에서 '리야드의 압구정'이라고 불리는 타할리아 거리는 보수적인 사우디에서 흔치 않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우디의 휴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인데, 목요일 밤이 되면 우리나라의 '불금'처럼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다국적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많은 곳이지만 주류 판매가 엄격히 금지돼 있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참 다릅니다.

## 치열한 경쟁과 난관, 현대정신으로 돌파!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9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2007.9



▲ 현대중공업에서 첫 육상 건조한 LPG운반선 '프린스(Prince)호'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해양사업본부에서 LPG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크(Dock) 없이 육상에서 유조선을 건조하며 관련 기술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조선 설비가 부족하고 LPG선 건조 노하우가 없는 해양에서 LPG선을 육상 건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해양사업본부는 특별 TFT를 꾸려 조선사업본부의 LPG선 건조 현장을 견학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2년여간 철저히 준비한 끝에 성공적으로 선박을 진수했다.

특히 육상 건조를 위해 '말뚝의 눈물'이라 불리는 1천5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블록의 조립과 탑재 과정의 적재적소에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육상 건조한 이 선박은 '프린스(Prince)호'로 명명됐다.

또, 이달 사보에는 정주영 창업자가 1991년 7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회고록이 실렸다. 특히 정주영 창업자가 조선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금융계를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일화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정주영 창업자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전환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은행으로부터 차관 제공 결정을 얻어냈다는 이야기가 눈에 띈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제 4회 조선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대미포조선 직원 3명이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자재구매부 강철문 차장이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선체내업부 하동용 팀장과 장비운영부 윤기현 반장이 한국조선협회로부터 우수근로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달 3일부터 개최된 '전국 품질분임조정진대회'에 출전하여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돌품팀'은 '도료 출고확정 프로세스 단순화로 업무시간 단축을, 동상을 수상한 '오투기팀'은 '플라즈마 아크 발생장치 개선으로 고장률 감소'를 발표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매년 전국 품질분임조정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제 4회 조선의 날' 현대미포조선 표창 수상자



▲ '전국 품질분임조정진대회'에서 수상한 현대삼호중공업 '돌품팀', '오투기팀'

이달 사보에는 현대중공업이 대우건설 및 한국중공업(現 두산중공업)과 3사 공동이행 방식으로 진행한 하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방문기가 소개됐다. 하동군 금성면에 위치한 건설 현장은 500메가와트 규모의 대단위 발전소 6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취재팀 방문 당시 4개의 굴뚝은 설치가 완료됐으며 1, 2호기는 최대 발전용량으로 정상 운전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 사우들은 한전에서 제시한 대형표준발전소 건설에 있어 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플랜트 공사부, 건설사업부의 토목부와 건축부 등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며, 현대맨으로서의 끈기와 강인한 추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97년 9월에는 현대미포조선 수리선사업부 천리안분임조(분임장 이규홍 外 7명)가 '97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은상을 획득했다.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각 지역 예선을 거친 12개 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으며, 현대미포조선은 1992년부터 매년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분임활동 및 품질개선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1997.9



▲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하동 화력발전소 6호기 건설 현장



▲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현대미포조선 '천리안분임조'

현대중공업은 인도네시아 항만청으로부터 컨테이너 크레인 13기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1천 300만불에 수주했다. 이 크레인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항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항에 1990년까지 설치될 계획이었다. 한편, 당시 현대중공업은 1985년 미국 싸애틀항에 4기, 198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에 2기의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콜롬비아 수리조선소 합작투자에 대한 기본 약정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선박수리 기술을 해외에 수출했다. 이 투자는 현대중합상사가 지배주주로서 현지 코나스틸(CONASTIL) 국영 조선소 및 국제 금융회사(I.F.C)와 합작으로 자본을 공여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설비 및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였다.

1987.9



▲ 현대중공업 사보 1987년 9·10월호

현대중공업은 미국 맥터보트사와 2천320만달러의 대형 특수 해상공작선 1척을 계약하며 미국 특수선 시장을 개척했다. 이 선박은 당시 세계 조선업계가 주목하던 해상공작선으로, 일본의 유수한 조선소와의 경쟁을 이기고 수주를 따내 그 의미가 남달랐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 기술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양질의 선박을 생산으로 최단 시일에 건조해 공신력을 크게 높여가고 말했다.

이어서 이달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현대조선 새마을금고'(現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의 발족 소식이 실렸다. 새마을 금고는 사우 누구나 일정액의 금액을 출자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고, 연 1회 결산을 통해 출자금 비율만큼 배당금을 지급했다.

1977.9



▲ 현대중공업 사보 1977년 9월호

## 사진으로 쓰는 세계 3대 폭포 여행

야속하리만큼 뜨거운 태양에 흐르는 땀방울이 마르지 않는 날이었다.

하지만 곧 거대한 물줄기를 시원하게 내뿜는 폭포의 장관을 마주한 순간, 더위가 순식간에 달아났다.

한적한 운치가 있는 울산 정자 바닷가에 위치한 렌토 갤러리에서 '세계 3대 폭포'를 주제로 첫 개인전을 가진 여행전문가 겸 사진작가 권혁준(61)·송영민(57) 씨 부부를 만나 그들의 여행과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여행과 사진으로 다시 쓰는 '인생 2막'

청년은 꿈을 먹고 살고, 노년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한다. 그 빛나는 추억을 되새김질 하기 가장 좋은 취미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억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진이다. 그렇게 '여행'과 '사진'으로 엮어진 부부 여행가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카메라 속에 담아내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인생 2막을 쓰고 있었다.

권혁준 작가는 1977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자동화연구실에서 28년간 근무한 연구원으로 재직 기간 동안 대한민국 최우수 발명가로 선정되어 청와대 초청을 받기도 했고, 대한민국 산업훈장과 과학기술 분야 최고상인 장영실상 등 사내·외 표창을 여러 번 받았다. 그러다가 정년을 10년 앞둔 2005년, 새로운 도전의 일환으로 회사를 떠나 기술개발 관련 IT 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는 등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틈나는 대로 평소 동경해왔던 지구촌 곳곳을 부지런히 여행하며 노년의 양식이 되 어줄 추억을 차곡차곡 저장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부부는 현지에 머무르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커피를 테마로 한 여행이라면 커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종류와 재배지 등의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비롯하여 커피의 재배와 로스팅까지 체험해야 바로 여행이 마무리 되는 것이다.

### 폭포의 추억을 함께 나누며 ...

‘지구촌 3대 폭포 스케치’라는 주제로 열린 부부 사진가의 첫 번째 개인전은 미국과 캐나다로 이어지는 북미 대륙의 ‘나이아가라 폭포’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에 걸려있는 남미 대륙의 ‘이구아수 폭포’ 그리고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빅토리아 폭포’를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를 방문하면서 찍어온 결과물들이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폭포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기 위해 지상 촬영은 물론, 헬기를 동원한 항공 촬영을 통해 규모감 있고 운치 있는 사진을 생생하게 담아왔다.

권혁준·송영민 씨 부부는 첫 번째 개인전이라 사진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논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또, 폭포 촬영은 변수가 많아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고충을 이야기 한다.

우선 폭포의 특성상 현지의 날씨와 우기, 건기에 따라 폭포양의 차이가 많이 나, 월별로 최근 통계를 확인하고 수시로 기상 상태를 점검해야 했다 한다. 아울러 폭포가 워낙 거대한 까닭에 지상과 상공의 여러 촬영 포인트를 잡고, 시야를 가리는 엄청난 물안개와 미끄러운 물이끼를 피해 셔터를 누르는 고생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절별 특징을 담아내려고 3번이나 방문한 나이아가라에서는 소중한 카메라를 두 대나 폭포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제는 그 쓰라린 경험마저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하니 부부의 내공이 새삼 느껴졌다. 이런 작가의 후일담을 듣고 다시 폭포 사진을 보니 한 컷 한 컷 셔터를 누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성과 고민이 서려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올해 회갑을 맞이한 권혁준 작가는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조금 더 세상을 둘러보며 여행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올 가을, 가족들과 알프스 4대 미봉을 동반할 계획을 세웠다.

고산 등반을 위한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다는 그는 알프스 여행이 끝남과 동시에 집안 친척들과 서유럽으로 문화기행을 떠날 준비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건널 수 없는 추위 때문에 세 번이나 되돌아와야 했던 남극 여행도 언젠가 꼭 해내고야 말리라는 의욕을 보였다.

권혁준·송영민 씨 부부의 끝없는 도전정신과 멈추지 않는 열정을 응원한다. 벌써부터 부부 여행가의 다음 사진전이 기다려진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무리포터



## 당구장의 새로운 변신

당구장이라면 담배연기 자욱하고  
쾌쾌한 냄새가 연상된다.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봐왔던  
고정관념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울산과학대 아산체육관에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깔끔한 당구장이 문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울산과학대 당구교실

주소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  
아산체육관 1층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명절 휴무)

강습 평일·주말반 오후 1시~6시

주 4회 7만원, 주 2회 5만원

문의 052)230-0656, 0802

작년 12월 말 개장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당구장은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질서 있다. 내부에는 당구대 8개, 포켓볼대 2개가 비치돼있어 당구 강습과 함께 일반인  
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당구장 좌측의 통유리는 하얀 세상의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담고, 우측의 통유리는 축  
구장, 산책로와 본관을 두르는 초록 물결을 담고 있다. 양쪽의 탁 트인 경치로 당구 게임  
의 승부에 저도 속상한 마음이 덜할 것 같다.

이 곳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고, 강습비와 이용료가 경제  
적인 것이 큰 장점이다. 당구는 남녀노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스포츠인만큼, 부부가 함  
께 당구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긴 큐대를 당구공에 조준하고 있는 여성 강습자들  
의 진지한 모습을 보다 보면, 멋있다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강습반에 있는 변승귀(46세) 씨는 “평소 당구를 잘 못 쳐, 친구들과 함께 당구장에 갈  
때면 어울리기가 어려웠는데, 올 연말까지 열심히 배워 친구들과 즐겁게 당구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당구교실 관리와 지도를 맡고 있는 황용원 강사(49세)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생긴 당  
구교실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당구교실에서 실력을 쌓은 이  
들이 지역 동호회 시합 등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구대 위에 적색, 백색의 공이 큐대에 따라 움직이면, 점수도 사람들의 표정도 파도처  
럼 일렁인다.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강습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울  
산과학대 ‘당구교실’에서 즐거운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길 바란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 옛 방어진 사람들의 ‘정취’ 가득한 역사 속으로

오래 전 소란했던 방어의 노래는 이제 전설이 되어 남은 이들의 삶을 타고 흐른다. 대체 얼마나 많은 배들이 만선의 깃발을 올렸기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이 되었을까. 그 풍요의 세월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극단 무량대수의 뮤지컬 '방어진이 간다'는 역사의 아픔과 삶의 역경을 이기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방어진의 희로애락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이 지역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한 결과 선정된 이 뮤지컬은, 올해 차용문화제 특별공연과 조선해양축제 폐막작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울산 지역작가인 강창호 작가의 극본과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이영재 작곡가의 곡을 바탕으로 극단의 대표, 연출가와 배우 모두가 노랫말을 함께 짓고 대본을 탈고했다. 또, 동구청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방어진의 역사와 배경에 관한 검증을 거쳐, 한층 사실적으로 옛 모습을 그려냈다.

뮤지컬 '방어진이 간다'를 제작하면서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많은 장소들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말하는 정대찬 감독은 "이 작품이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역할을 다하여 방어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뮤지컬 '방어진이 간다' 줄거리

활기찬 어느 아침, 모두의 기대 속에 '어진'이 태어나고, '어진'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다. 그 때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낚시 뱃고동 소리. 고기를 잡으러 건너왔다며 일본 오카야마현 히나세인들이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어진'과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온 일본인들과 더불어 살게 된다.

일본인에 의해서 극장과 학교, 목욕탕이 생겨나는 등 마을은 점차 발전했지만 '어진'과 마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술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과연 방어진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트

### 극단 무량대수

울산에서 꾸준히 극단을 운영해 온 천세연 대표가 연극인이 되기를 꿈꾸는 많은 지역예술인이 뜻을 이루길 바라며 2015년에 설립했다.

연출은 연기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정대찬 감독이 맡고 있다.



## “장소·시간 구애 없다! 대세는 스크린(Screen)”

최근, 영화 관람이나 쇼핑 등에서 벗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크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현실(VR)과 첨단센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실제 경기처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스포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보자!

### 스크린 야구 ///

사회인 야구 같은 실제 야구를 즐기려면 최소 9명 이상의 인원을 모아야 한다. 게다가 야구를 할 장소를 빌리는 것도 쉽지 않다. 보는 야구보다 직접 하는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날씨, 시간, 장소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야구가 안성맞춤이다. 스크린 야구는 고화질의 대형 화면, 실제 경기와 같은 진행 방식, 정확한 타격 인식 등으로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공한다.

### 스크린 양궁 ///

양궁은 일반인이 접해보기 힘든 운동이다. 그런데 스크린 양궁 덕분에 이제 누구나 손쉽게 양궁선수가 될 수 있다. 활을 잡고 스크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시위를 당기면 초보자도 쉽게 과녁을 맞출 수 있다.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려면 생각보다 힘이 들고, 게임을 즐기다 보면 손가락과 팔이 아프기도 하다. 그래도 활 시위를 튕기는 손 맛과 과녁에 화살이 맞는 짜릿한 타격감이 아픔을 잊게 만들기 충분하다.

### 스크린 사격 ///

왕년에 ‘총 좀 쏘봤다’는 군필자들이 열광하는 스크린 사격! 총을 쏘볼 기회가 없는 여성들도 사격의 재미에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다. 실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총기보다는 가볍지만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지는 총을 들고 한 발 한 발 쏘다 보면, 실제 사격을 하는 것 같은 실감나는 사운드와 반동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다.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짜릿한 스틸과 적을 제압하는 쾌감을 느껴보고 싶다면 도전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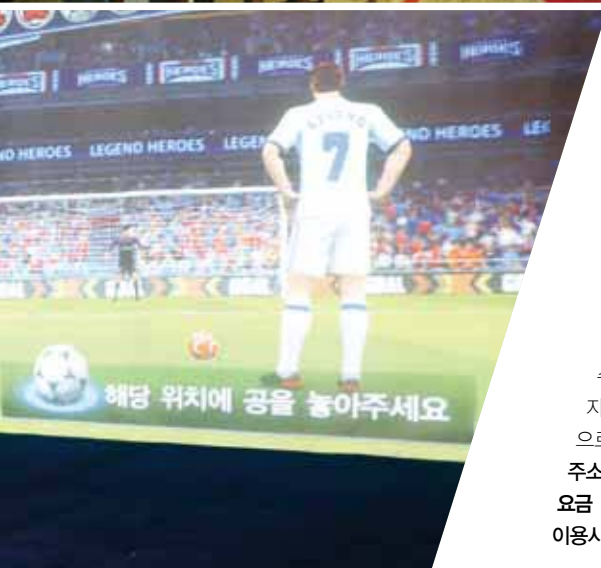
### 스크린 축구 ///

얼마 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멕시코인들이 스크린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나온 뒤 부쩍 유명해졌다. 스크린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함께 뛰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상대방과 1대 1로 승부차기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에 참가한 인원이 한 명씩 지정된 장소에 공을 올리고 스크린 속 골대로 슛을 날리면 되는데, 정해진 횟수 안에서 골을 더 많이 넣는 사람이 승리한다.

### 스크린 승마 ///

스크린 승마는 실제 승마보다 덜 위험하면서도 자세교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체험 시작 전, 매니저가 승마 자세와 간단한 조작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제 말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말 위에 올라타 조작법대로 달리면, 스크린에 산, 바다 등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구현돼, 야외에서 승마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제공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블로그 'hi,hi'에서  
스크린 스포츠를 더 생생하게 만나 보세요!

### 멀티 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이 곳에서는 야구 베팅 및 피칭, 축구, 사격, 양궁, 캔디 슬래쉬까지 총 13가지의 스크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건물 바닥에는 각 스크린 스포츠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이 표시돼 있고, 각 스포츠마다 키오스크(KIOSK/무인정보안내시스템)을 운영해, 결제 후 받은 NFC 카드를 태그하면 전광판에서 대기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비치해 뒤 대기시간에도 무료하지 않다.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료수와 팝콘을 먹으며 신나게 몸을 움직여보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12, 지하 1층(서초동, 세계빌딩)

요금 1시간 1만2천원, 2시간 1만9천원 등

이용시간 오전 11시 ~ 익일 새벽 1시 / 문의 02-532-1348

## 푸른고래가 헤엄치는 바닷속으로 '퐁당!'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고래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5D입체 영상관이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영상관은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1회에 60여명이 관람 가능한 지름 13미터, 높이 5미터의 대형 영상 원형 스크린이, 2층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카페테리아가 마련됐다. 카페테리아 밖으로는 울산대교와 울산국가산업단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 영상관행 친절할 '무료 순환버스'

귀신고래가 해수면을 뛰어 오르는 모습을 형상화 한 5D입체 영상관은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고래문화마을은 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마을 사이 1.3km 구간을 잇는 친환경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래 모양을 본뜬 파란색 순환버스가 고래특구를 부지런히 누빈다.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오후 4시 40분이

마지막 운행이다.

고래박물관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설레는 맘으로 5D입체 영상관으로 향했다. 우리를 태운 순환버스가 멈춘 곳은 고래문화마을 광장 입구. 매표소에서 5D입체 영상의 상영시간을 확인해 티켓을 구입한다. 상영시간이 남아 있다면 고래문화마을과 조각공원을 잠깐 둘러봐도 즐거운 시간이 된다.



## 온 몸으로 느끼는 5D입체 영상

상영시간이 되면, 서클입체영상관 앞에서 5D영상을 즐기 위한 특수안경을 나누어 준다. 안경을 받아서 입장하면 360도 입체 영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5D는 평면 스크린을 사용하는 기존의 3D와 달리 360도 원형 스크린을 사용하는데, 중앙에 배치된 영사기가 특수 영상을 쏘면 앞쪽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사람이나 동물의 영상이 관람객의 몸을 통과해 뒤쪽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즉 관람객이 직접 현장에 들어간 것처럼 앞, 옆, 뒤까지 모든 방향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5D입체 영상은 약 11분간 상영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생동감이 뛰어나 보는 내내 정신을 빼앗기고 만다. 영상은 새끼를 낳은 귀신고래가 고향인 장생포 앞바다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울산 앞바다를 지키는 장생포 수호단의 쌍둥이 남매 최강, 최선과 귀신고래를 울산으로 데려오는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쌍둥이 아빠 등이 나온다.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따라 영상을 주시하면, 보다 재미있는 관람이 가능하다. 물과 바람, 물방울, 스모그 등의 효과가 보다 생생히 느껴진다. 아이들은 아기고래가 엄마고래를 따라 헤엄쳐 갈 때 아기고래의 등에 살짝 손을 얹어 본다. 귀신고래와 고대상어의 결투 모습에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숨을 죽이고 영상에 집중한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가족 한 팀을 만나 보았다. 수원에서 가



죽여행을 왔다가 입체 영상관을 들렀다는 한현규(잠원초 4학년) 군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위급할 때 귀신고래가 지켜줘서 기뻐요. 아기고래도 귀엽고요”라고 소감을 전한다. 관람을 마친 대부분의 아이들도 “또 보고 싶다”며 부모의 손을 흔든다.

## 즐길거리 ‘한아름’, 고래문화특구 장생포

관람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니 시원한 바람이 잠시 어지러웠던 머리를 식혀 준다. 카페테리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울산대교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겨 본다.

입체 영상관 주변으로는 무궁화, 철쭉, 홍가시나무 등의 관목류가 심어져 있는 산책로가 조성돼있다. 아름다운 무궁화를 즐기면서 고래광장이나 고래 이야기 길로 아이와 손을 잡고 가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

한편,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에는 고래 박물관, 고래 생태관, 고래바다 여행선, 고래문화마을 등 많은 볼거리가 있다. 5D입체 영상을 관람하고,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를 즐긴다면 완벽한 ‘고래 여행’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 가을, 장생포고래마을 5D입체 영상관에서 푸른 고래를 만나보길 바란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 장생포고래마을 ‘5D입체 영상관’

주소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1 (매암동)

상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1시간 간격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30분 간격 (월요일 휴관)

상영영상 ‘귀신고래의 귀환’ (11분) ※ 노약자나 임신부는 관람 삼가

요금 3천원

문의 052-226-0980

# 동심으로 떠나는 여행?

나이는 동심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걸까. 어릴 적 기억들은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며 하루씩 다른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

자로 잤 듯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재미와 여유를 찾고, 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려는 키덜트(Kidult) 문화는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추억 속 영사기·축음기 등 이색 취향 저격

경주 보문호숫가에 위치한 키덜트 뮤지엄은 바로 '키덜트족'이 추억 속에 꼭 빠질만한 장소다. 지난해 문을 연 키덜트 뮤지엄은 2개층 11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감성을 깨우는 전시물이 가득해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1층에는 총 5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그 중 19세기에 사용되던 영사기 초기 모델인, 촛불 영사기가 눈에 띈다. 이 영사기는 전기 대신 촛불을 사용해 그림을 움직이는데, 당시 전기가 개발되지 않아 사

람이 직접 손으로 조작해 동력을 전달했다 한다.

또, 1920~30년대 무성영화 시대를 이끈 필름 영사기도 전시돼 있다. 필름 영사기는 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에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들의 대사 등을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무성영화 해설자(변사/辯士)가 등장했다고 전해진다.

그 옆으로는 축음기 전시관이다. 축음기는 원판에 홈을 파서 소리를 저장하고 바늘로 저장된 소리를 재생시키는 기계다. 이 곳에는 다양한 축음기와 함께 엘비스 프레슬리 히트곡 모음집 등

수많은 LP판이 전시돼 있는데, 요청을 하면 오래된 축음기를 통해 추억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한쪽 벽면에는 음료수 자판기, 악기, 비행기, 자동차 모양 등 재미있는 디자인의 라디오들이 빼곡히 놓여있다.

그리고 직접 레고(Lego)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이 곳에서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눈을 반짝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레고 작품 제작에 열중한다.



### 유명 인기 캐릭터 피규어가 한 곳에

한편 2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돼 3층으로 전시관이 연결되는데, 3층 제2전시장에는 건담 시리즈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난, 아톰, 원피스, 포켓몬스터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캐릭터 피규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캐릭터 피규어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라인' 캐릭터 피규어 등도 전시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장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다른 쪽 벽면은 옛날 교과서와 잡지, 레코드 판 등으로 장식돼 아련한 옛 추억들이 떠오른다.

브라운관 TV 속에서 피규어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디오라마관은 생생한 배경이 어우러져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 옆으로는 버려진 물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는 정크아트관이 마련돼 있다. 수십 개의 TV 내부기판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대형 로봇 태권V는 정크아트관을 지키는 마스코트다. 이를 지나면 전동 타자기, 축음기 등 에디슨의 발명품들은 한눈에 볼 수 있다.

레전드(Legend)라 불리는 명작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세월의 무게를 거스르고 돌고 돈다. 최근 극장가에서 스머프나 원더우먼 등 추억 속 인기 캐릭터들이 부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키덜트 뮤지엄은 어른에게는 옛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고,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추억을 선사하니 세대를 초월해 찾아볼 만 하다. 레고 만들기에 집중해있는 아버지와 마징가 제트 사이를 누비는 아이들 사이에 소리 없이 소통의 공감대가 커져간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 거울미로와 트릭아트, '경주 미로지엄'



보문단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미로지엄(Miroseum)이 위치해 있다.

미로지엄은 미로(Miro)와 뮤지엄

(Museum)의 합성어로, 거울미로와 루미아트 체험관으로 구성된 1관과 로봇, 트릭아트로 구성된 2관 그리고 야외 조형물로 이뤄져 있다.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부터 색다르다. 매표소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연상케 해 조형물로 착각하고 지나쳐 버리기 쉽다. 1관 1층은 카페인데 이 곳으로 입장하여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거울미로 속에 끝없이 이어진 '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신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짧은 숨바꼭질을 해도 재미있다.

거울미로를 지나면 루미아트관이 나오는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형광색의 다양한 그림들은 바닷속과 우주공간의 신비로움을 담았다.

심어 마리의 귀여운 팬더인형이 놓인 팬더존을 지나 2관으로 건너가면 작품의 일부를 찢은 종이로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과 로봇들을 만날 수 있다. 트릭아트관에서는 연기력을 심부 발휘해 보는 건 어떨까. 제시된 표정이나 자세에 따라 사진을 찍으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 경주 미로지엄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남로 516-14

입장료 어른 6천원, 어린이 5천원

### 이용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화요일 휴무)

주말 오전 10시 ~ 오후 7시

문의 010-9644-5101

### 경주 키덜트 뮤지엄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132-16 콜로세움

입장료 성인 7천5백원, 어린이 6천5백원

(단, 현대중공업 사원증 제시 시 성인 4천원, 어린이 3천원)

이용시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문의 054-744-7997

## “계속된 불행에 다리까지 말썽”

동구 대송동 주택가 골목 안에 위치한 작은 단칸방. 거동이 불편한 채 몇 달을 누워있었지만 문을 두드려 주는 이가 없다. 외로운 마음에 앓았다 누웠다는 반복해 보지만 쓸쓸함은 오히려 깊어진다.



### 첫 결혼의 실패로 시작된 불행

조서영 씨(62세)의 삶에 어둠이 들기 시작한 건 그녀가 24세 때 첫 결혼에 실패를 하면서 부터다.

철없던 22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폭력은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고 아이도 없던 터라 2년 만에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그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호적이 평생 발목을 붙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후, 재혼한 남편과 아들 한 명을 낳아 키우며 첫 결혼생활의 불행했던 기억이 잊혀질 만큼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들이 6학년 때 남편이 급성 간경화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남겨진 아들과 어떡해서든 살아야 했다. 공부를 곧 잘했던 영특한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지만 원하는 대학을 보내기엔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



그때는 어린 아들과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그제야 확인해보니 친아들과 조서영 씨는 서류상 남남이었다. 어찌된 일인가 부랴부랴 알아보니 첫 남편과 호적이 이혼으로 정리되지 않아 두 번째 결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들은 당연히 죽은 남편의 아들이므로 올려져 있었던 것. 지금도 친아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동거인으로만 명시돼있다. 이후 아들과도 소원해져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픈 다리를 이끌고서라도 일하고파...

열심히 산 삶에 대한 대가가 이젠가 싶어 서글펐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정신이 팔린 즈음에 국제전화라고 적힌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 피싱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사기를 당한 뒤였다. 일하다 넘어져 다친 다리를 아픈 단 내색도 안하고 물리치료 받아가며 힘겹게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 거기에 지인이 자동차를 구매한다기에 믿고 서준 보증이 제 3금융권의 부채로 돌아왔다. 옆친 데 댔친 격으로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았다.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는데 정작 고통은 다리로 왔다. 일하며 다친 다리를 진통제 맞아가며 버틴 지 10년 만에 다리는 더 이상 버티주질 못하고 조서영 씨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도저히 통증을 견디기가 어려워 찾았던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올 2월 21일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경과가 좋지 않아 2달 동안 2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다리는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울 만큼 불편한 상태다. 지금 살고 있는 단칸방의 보증금 천 만원도 동구청의 지원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매월 내야 하는 월세 30만원과 생활비조차 마련이 어렵다. 그녀는 제대로 서기도 어려운 건강상태로 자활근로를 신청하고 이틀을 다녀왔다 한다. 다리를 끌고 가서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조서영 씨. 할 수만 있다면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은데 아픈 다리는 일어서려는 그녀를 기어이 주저앉히고야 만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한 다리가 나아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터로 가고 싶다는 그녀. 조서영 씨가 다리에 힘을 싣고 우뚝 일어서기 위해 우리의 작은 응원이 필요하다.

**최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66

할 수만 있다면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다는 그녀.  
하지만 아픈 다리는  
일어서려는 그녀를  
기어이 주저앉히고야 만다.

99

#### 도움 계좌

농협 815121-56-055776(예금주 조서영)



# 바닥난 면역력이 보내는 ‘경고’

우리 신체는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상포진은 소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 한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대상포진은 어떤 질병인가요?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치료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랜 기간 몸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의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생체 내의 면역기능이 떨어질 때 활성화되며 발생합니다.

예전엔 면역력이 낮은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주로 발병했지만, 요즘은 젊은 연령층인 20대에서도 대상포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요?

처음에는 몸의 한쪽 편으로 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환자들은 두통, 호흡 곤란, 복통, 팔다리 저림,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피부 발진은 띠 모양으로 물집이나 붉은 반점이 생겨나는데, 약 12~24시간 내에 수포를 형성합니다. 가슴, 안면부, 허리의 빈도로 자주 발생하며, 발생 이후 2~3주 정도면 서서히 상태가 좋아





집니다. 하지만 물집이 소실되어도 통증은 계속 남아있기도 합니다.

### 대상포진과 다른 질병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나요?

병변이 드러나지 않은 채, 전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얼굴에 발생하는 경우 두통으로 생각하기 쉽고, 옆구리에 발생하는 경우 요로결석이나 담석으로, 사지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몸살, 근육통이나 디스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의 특정 부위에 증상이 발생하거나 살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이상감각이 동반되고 또, 최근 피로하거나 무리한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부 병변이 나타났다면 그 임상 양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7일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고,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대상포진 부위에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사용하고, 염증이 심한 경우 항염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의 경우 물집을 터트리고 깨끗하게 소독한 뒤, 진물을 흡수하고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는 드레싱 제제를 사용합니다. 만약 진통제만으로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진통 효과가 있는 파스나 연고를 사용하고, 주사로 약물을 주입해 신경 주변 염증을 진정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먹는 약과 충분한 휴식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부 병변이 없어진 후에도 남아있는 통증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하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 병변이 치유되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된 신경세포로 인해 상처가 남아 신경통이 발생합니다.

이를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부르는데, 대상포진 합병증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수면 장애, 만성 통증에 따른 피로, 우울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통제 사용으로 통증을 조절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신경차단술을 시도합니다.

실제로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환자의 약 50%가 3개월 내, 70%의 환자가 1년 내에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최근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약독화한 생백신이 개발돼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바이러스는 재활성화가 되므로, 평소 스트레스 환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약자는 백신을 맞을 경우, 오히려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제공** 서울아산병원

#### 스스로 확인해보는 대상포진 증상

-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몸에 힘이 없고, 특히 몸의 한 부분의 통증이 심하다.
- 피부에 붉은 띠처럼 물집이 생겼다.
- 최근 야근이 잦고 과로한 뒤로부터 몸에서 통증을 느낀다.
- 몸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 “감정을 숨기고 가면을 쓴 당신, 혹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픔과 분노를 감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적당히 자신을 감추고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

### 지나치게 감정을 숨기는 것은 ‘병’

직장 내 인간관계, 과도한 업무나 경쟁 속에서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때때로 감정을 숨깁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늘 웃으며 밝은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울하고 절망감으로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늘 ‘난 괜찮아’하며 살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통이 오고, 만성적으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소화가 잘 안되기도 하고 감정이복이 심해집니다. 그런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아 두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심리적으로도 점점 편치 않습니다. 진짜 감정은 발산하지 못하고 쌓아 놓게 되니 감정의 부조화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밖에서의 밝은 모습은 어디 가고 혼자서 우울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불안정해 보이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럴수록 다

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더 열심히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념을 만듭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등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인정받기 위해 더 강력한 기준으로 자신을 묶어 놓습니다. 이것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입니다. 화가 나도 참고 늘 웃음으로 사람을 맞이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나 연예인 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 가면을 벗어 던져라!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에게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내가 가면을 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면 속에 숨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이 때는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존



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 풀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 내 감정 수용하기

‘난 괜찮지 않아’, ‘나 힘들어’라는 생각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포장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응해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스트레스 해소하기

숨겨두었던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스마일 증후군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갖기,

좋은 음악 듣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때때로 휴식을 취하며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화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면 ‘화가 나도 조절할 수 있다’는 안도감 덕분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감정을 통제하지 않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자신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내가 가진 신념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진 않는지 마음과 진실하게 대화해보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신념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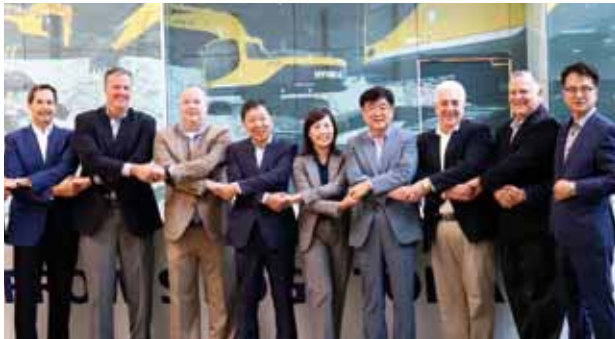


#### 나를 가치 있게 하는 일 찾아보기

나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존중하게 되면 남도 잘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전달하면 나 스스로도 당당해지고, 그들이 주는 감사의 마음은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또한 힘들고 수고한 나에게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감사와 존중이 주는 여유로운 마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글 김명현 상담사(현대미포조선 마음정원)





### 경영진, 휴가 중 위기 극복에 출선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여름 휴가기간에도 국내·외 사업장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최길선 회장과 강환구 사장은 휴가기간 동안 울산에서 조선과 해양을 비롯해 각 공장을 점검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권오갑 부회장은 8월 7일 현대일렉트릭 주영걸 대표와 함께 미국 알라바마 법인을 방문해 변압기 공장을 둘러본 후 영업 및 생산전략을 점검하고, 8일에는 아틀란타법인을 찾아 현지 임직원을 격려했다. 「사진」

장기돈 엔진기계 사업대표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의 조선소들을 찾아 영업활동을 펼쳤고, 주원호 중앙기술원장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인도와 중국의 기업·대학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컨-선 '풀 탠덤공법' 첫 성공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가 '풀 탠덤(Full Tandem)공법'으로 컨테이너선의 건조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7월 27일 3도크에서 1만4천TEU급 컨테이너선(2876호선) 건조에 이 공법을 처음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탠덤이란 건조완료 선박과 부분건조 선박을 동시에 진수시켜 완성된 선박은 도크 밖으로 빼내고 부분건조 선박의 나머지 공정을 진행하는 공법이다. 풀 탠덤은 블록들을 차례로 탑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선수·선미부의 핵심 블록들을 나중에 삽입해 6주 만에 블록 탑재를 완료한다.

이로 인해 선내 해수 유입을 차단하는 '물막이 작업' 등을 하지 않아도 돼 전체 공정률(89%)을 10% 가량 향상시키고 자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사우디 최대 발전소 인도

현대중공업 플랜트사업부문이 7월 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발전소인 '제다사우스(Jeddah South) 화력발전소'의 성능 시험과 신뢰성 운전을 무결점으로 끝나고, 발주처인 사우디 전력공사(SEC)로부터 공사완공증명서(PAC)를 받았다.

사우디 최대의 항구 도시인 제다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안에 건설된 이 발전소는 약 2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2천640MW(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초임계압(超臨界壓) 보일러를 적용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10월 이 발전소를 수주해 최근 4기의 발전설비를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했으며, 최종승인증명서(FAC)도 연내에 받을 예정이다.



### 부경대에 힘센엔진 기증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가 8월 23일 부산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에 힘센엔진 1기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힘센엔진(모델명: H17/28)은 1천250마력급 시제품으로 부경대 내연기관실험실습실에 설치돼 기관시스템학과 학생들의 디젤엔진 운전 및 유지보수 실습 등에 활용된다.

또한 점차 강화되는 선박 환경규제에 대비해 친환경 엔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기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중소형 선박용 엔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업 분야에 특화된 부경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 오정철 기장 '대한민국 명장' 선정

현대중공업 오정철 기장(48세)이 8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선박 기자재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대한민국 명장(名匠)(기계조립 직종)'에 선정됐다.

오정철 기장은 지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품질명장'에 이어, 이번에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명장'에 뽑히면서 국가공인 양대 명장에 올랐다. 1987년 입사한 오정철 기장은 건설장비와 선박 기자재 생산현장에서 4천 여건의 품질·공정 문제들을 개선했으며, 7건의 특허와 실용실안 2건, 디자인 1건 등 총 21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며 회사의 산업기술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세계 최대 산업용 'ESS' 수주

현대일렉트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수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7월 27일(목) 경기도 분당사무소에서 주영걸 대표, 이제중 고려아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아연과 '에너지효율화 설비구축 사업' 공동추진 계약식을 가졌다.

이 계약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오는 11월까지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고려아연 제련공장에 150MWh(메가와트시)급 ESS를 설치한다.

ESS는 전력을 담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150MWh는 4만5천여명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 선진시장 건설장비 판매 증가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선진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6월까지 영국의 글로벌 종합건설장비 기업인 CNH사에 미니굴삭기(1~6톤급) 2천여대를 공급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미니굴삭기를 통해 5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이올러 6월 말에 호주·뉴질랜드 포터하이어(Porter Hire)사로부터 중형 굴삭기 등 장비 145대를 수주, 7월에는 미국 올드캐슬(Oldcastle)사와 지게차 285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진시장에서 잇달아 수주를 따냈다.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북미와 대양주에서 판매량을 지난해 대비 각각 40%, 45% 신장시킬 계획이며, 10월 벨기에에 완공되는 유럽 통합신사옥을 통해 올해 유럽 지역 매출도 지난해보다 10% 늘릴 방침이다.



### 글로벌 톱5 로봇기업 도약 선언

현대로보틱스는 8월 31일 대구 본사에서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현대로보틱스 윤종근 대표와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와 고객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소개하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대로보틱스는 오는 2021년까지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제품 및 시장 다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등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로봇종합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2021'을 발표했다.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4월 출범과 동시에 대구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정보통신기술(CT)과 생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공장 내 각종 생산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다.



## 임금협약 단체교섭 타결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 단체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2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

현대미포조선은 8월 17일 울산 한우리회관 회의실에서 한영석 사장과 강원식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서 한영석 사장은 "2년간 쌓아온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강원식 노조위원장도 "경영정상화를 통한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교섭을 마무리 했다"며, "노동조합도 회사의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



## 로팩스선 본격 건조

현대미포조선이 15년 만에 로팩스(Ro-Pax)선의 본격적인 건조에 돌입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선각18공장에서 '위동항운유한공사'의 3만1천톤급 로팩스선(선번 8249호)에 대한 강재 절단식을 가졌다.

길이 199미터, 너비 27미터, 높이 32미터 크기의 이 선박은 오는 12월부터 4도크에서 본격적인 블록 조립에 들어가 내년 9월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 선박은 침수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엔진과 발전기 등 주요 장비를 2개씩 설치해 운항 중 하나의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 탑재

현대미포조선이 8월 20일 3도크에서 '일신해운'의 5만톤급 벌크선에 들어갈 LNG 연료탱크를 탑재했다.

포스코에서 개발한 신소재인 고망간강으로 제작된 이 연료탱크는 영하 162℃에 달하는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보관할 수 있으며, 기존 합금소재에 비해 강도와 인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한편, 자체 중량이 190톤에 달하는 이 탱크는 지름 7미터, 길이 18.7미터의 원통형 구조로 약 204톤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를 담을 수 있으며, 부산 소재 전문업체에서 제작돼 18일 압고 바지선을 통해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송됐다.



## HM-POPS 혁신활동 실적발표

현대미포조선은 8월 23일 한우리회관 대강당에서 HM-POPS 혁신활동 실적발표회를 가졌다.

한영석 사장과 관련 부서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추진된 부문 및 부서 과제 7건에 대한 현장 적용실적이 발표됐다.

특히, 선체설계부는 '도로 운영 사이클(Cycle)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혁신활동을 통해 연간 약 5억3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성과가 기대되고, 재무자재부문은 '외자재 재고 수준 감축'을 통해 연간 약 1억4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7 임금교섭 조인식 개최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국내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임금 교섭을 마치고, 수주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18일 윤문균 사장과 노동조합 유영창 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문균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한데 감사를 전하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 했다.

이에 노동조합 유영창 지회장은 "어려운 회사 사정에 공감한다"며 "이번 교섭타결이 회사의 위기극복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15만8천 DWT급 원유운반선 명명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8월 22일 터키 디타스 시핑(Ditas Shipping)에서 수주한 15만8천 DWT급 원유운반선(S907)의 명명식을 1인박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문균 사장을 비롯해 빌게 바이브르트루길 디타스 사장 등 4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새로운 선박의 탄생을 축하했다.

선주사에 의해 'T.SADERK(티 사드베르크)'호로 명명된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수주한 15만8천 DWT급 원유운반선 2척 중 첫 호선으로 길이 227미터, 폭 48미터, 깊이 23.1미터의 체원을 갖췄으며 최고 15노트(27.78km/h)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한편,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강제 절단을 시작으로 건조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진수를 거쳐 이날 선주사에 최종 인도됐다.



### 노사합동 '2017 사우자녀 여름캠프' 성황리 마무리

현대삼호중공업은 '2017 사우자녀 여름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지난 8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 전년보다 참가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 짧은 시간 내에 접수가 마감됐다.

캠프에 참여한 사우 자녀는 "신나는 여름캠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음 기회에 또 오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진행한 사우자녀 여름캠프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 잠수회, 해경에 심해 다이빙 기술 전수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가 지난 8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특수구조대에 '대심도(심해) 트라이믹스 다이빙 과정'을 교육하는 재능 기부를 실천했다.

트라이믹스 다이빙은 잠수 시간과 수심 구간 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심해의 동굴 탐사나 좌초 선박 인양 등의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날 잠수동호회는 심해 잠수에 필요한 감압절차와 기체 혼합 등의 이론 교육에 이어 실제 물속에서 활용해보는 실전 교육을 진행했다.

잠수동호회는 앞으로도 목포해경과 다이빙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 현대오일뱅크 |



## 무재해 선포식 개최

현대오일뱅크(사장: 문종박)는 8월 16일 충남 대산공장에서 문종박 사장과 협력회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정기보수에 대비한 '무재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재해 달성방안 선포,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문종박 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이 협력업체 대표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무재해 보수공사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한편, 이번 보수공사는 8월 22일부터 한달간 51개 협력회사와 함께 5천여명의 작업자를 투입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일산 28만 배럴의 제 2공장을 비롯해 제 2 고도화 공정, 제 1 BTX 공정을 멈추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설비 효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 | 서울아산병원 |



## 폐 이식 환자 생존율 증가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 폐이식팀(홍부외과 박승일·김동관 교수, 호흡기 내과 심태선 교수)이 2008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폐 이식을 받은 환자 41명을 분석한 결과, 1년 생존율 81%, 3년 생존율 77%, 5년 생존율 66%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의 폐 이식 생존율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1년 55%, 3년 48%, 5년 45%), 국제심폐이식학회(1년 85%, 3년 67%, 5년 61%)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 이는 많은 수술 경험과 수준 높은 중환자실 집중관리, 퇴원 후 합병증 관리 등 다학제간 진료시스템으로 가능했다.

홍부외과 박승일 교수는 폐 이식이 말기 폐부전 환자들에게 장기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치료법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 울산대학교병원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웅기)이 2회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010년부터 환자의 안전 관리 수준,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을 직접 조사해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울산대병원에 1주기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6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4개 영역 549개 조사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 우수한 점수로 재인증을 획득했으며, 2021년 8월 1일까지 4년간 인증 의료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 제 6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마무리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8월 23일 서울 마루180에서 '제 6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을 끝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4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진출한 8개 결선팀은 각각 사업모델을 발표해 전문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가받은 결과, '카운터어택'이 스마트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S-Vita)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앞서 6월에는 결선팀들이 창업지원센터 마루 180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 대표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 리더들로부터 1대 1 전담 멘토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아산 정주영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2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 아산나눔재단 |



## 제 44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8월 18일 교내 해송홀에서 졸업생과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4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울산대학교는 7개 학기 만에 학위를 받는 조기졸업자 6명 등 620명에게 학사 학위를, 307명에게 석사, 39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 가운데에는 학사 46명, 석사 17명, 박사 13명 등 총 76명의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한편, 울산대학교는 지난 1970년 개교한 이래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지금까지 학사 8만2천456명을 비롯해 석사 1만1천943명, 박사 1천738명 등 모두 9만6천13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 울산대학교 |



## 베트남 학교 방문 봉사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가 8월 11일 동부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재학생 25명과 인솔자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UC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해외 빈민 지역의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울산과학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 봉사단은 베트남 북부 박닌(Bac Ninh)성 지역에 위치한 빈민학교를 방문해 마루 보수공사와 시설물 청소에 나섰고, 하노이 국립공중보건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현지인들과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 울산과학대학교 |



## 심장이 쿵! 생기발랄 로맨스 코미디



### Synopsis

교통사고로 3년간 병원신세를 지고 있던 인호가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병가를 낸 담당 간호사 대신 락(Rock)을 좋아하는 엉뚱한 간호사 시은이 나타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은의 모습에 인호는 선뜻 고백 도우미를 자처하고, 그로 인해 모종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은에게 호감을 느끼는 인호와 시간이 흐를수록 고백하기를 망설이는 시은. 과연 이들의 사랑 고백은 성공할 수 있을까?

### 관람후기

오프닝에서 '오~, 중간중간 '와~, 마지막 순간 결국 '울컥'. 감동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연극!  
- 1stambitio\*\*

내 일기장을 봤나 싶은 대사와 에피소드 총망라. 대리만족은 물론 현실공감 100%  
- peekaboo\*\*

가족들끼리 함께 봤던 인생 연극!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너무 좋았다.  
- alekams\*\*

### | 관람정보 |

일시 2017. 10. 12(목) ~ 27(금)

장소 현대예술관 소공연장

관람 등급 8세 이상 관람가

티켓가 전석 2만5천원 (H+ 임직원 30% 할인)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가슴 뛰는 설렘을 선사하며 대학로의 인기작으로 자리잡은 로맨스 코미디 연극 '어바웃 타임'이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현대예술관 소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연극은 최근의 연애 트렌드로 통하는 '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연극 '어바웃 타임'은 능숙해 보이지만 사실 연애 하수인 남자와 청순해 보여도 화끈한 성격을 지닌 여자의 사랑 이야

기를 다룬다. 전혀 다른 성향의 남녀가 만나 서로에게 점점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로맨틱한 감성을 한껏 살렸다. 빈틈없는 스토리와 반전 로맨스는 물론, 1인 6역을 소화하며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멀티 남녀의 등장으로 또 하나의 유쾌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솔로 부대에게는 실전 연애노트로, 오래된 연인에게에는 잊었던 설렘으로 다가갈 연극 '어바웃 타임'과 함께 오는 10월의 가을을 핑크빛으로 물들여 보자!

## ‘국민 록 밴드’, 원조 명품 보컬이 뭉쳤다!

### Profile BAND 부활

1984년 'The End'라는 이름의 밴드로 시작해 리더 김태원이 김종서를 보컬로 영입하며 '부활'로 개명했다.

이후 2대 보컬 이승철의 영입과 함께 1986년 〈희아〉, 〈비와 당신의 이야기〉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3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 스코어를 올렸다.

대한민국 대표 록 밴드로 자리매김한 부활은 멤버 구성원들의 교체 속에서도 〈Lonely Night〉, 〈Never Ending Story〉, 〈생각이 나〉 등의 명곡들을 꾸준히 탄생시켰다.

특유의 서정성,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현재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96년 1집 발매 이후 〈희아〉, 〈사랑할수록〉, 〈비와 당신의 이야기〉, 〈네버 엔딩 스토리〉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록 밴드 '부활'이 오는 10월 21일(토) 현대예술



관을 찾아 데뷔 33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

수많은 명곡과 더불어 이승철, 김재기, 정동하 등 걸출한 보컬리스트들을 배출해 온 부활. 특히 이번 2017 부활 레전드 콘서트에는 현 보컬 김동명과 함께 1대 보컬 김종서, 5대 보컬 박완규가 한 무대에 올라 오리지널 보컬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30여 년 간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누군가에게는 추억으로 자리잡으며 대중의 가슴 속에 진한 감동을 남겨 온 부활의 음악! 주옥 같은 명곡들이 펼쳐질 특별한 라이브 현장을 함께 하자.

### | 관람 정보 |

일시 2017. 10. 21(토) 오후 3시, 7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 1층 7만7천원 / 2층 5만5천원  
(H+H 임직원 30~50% 할인)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 Vocal 김종서

1984년 부활 초대 보컬이다. 한국 헤비 메탈의 1세대 뮤지션으로 부활, 시나위를 거쳐 1992년 솔로로 전향했다.

〈대답 없는 너〉, 〈겨울비〉, 〈아름다운 구속〉 등의 히트곡이 있다.

대한민국 락의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보컬리스트로 평가받는다.

### VOCAL 박완규

1997년 부활 5대 보컬로, 부활 5집 〈Lonely Night〉을 노래해 큰 사랑을 받았다.

부활 탈퇴 이후 1999년 〈천년의 사랑〉을 발표, 허스키하고 파워풀한 음색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이후 〈나는 가수다〉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록 보컬리스트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 10경기 '무패' 행진, 지는 법을 잊은 호랑이



울산현대의 축구에 김도훈 감독의 색깔이 입혀졌다. 골득실이 적어 경기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최근 울산의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은 12개 구단 중 가장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쉴 틈 없이 압박과 빠른 속공을 선보이며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탄탄한 수비력에 이적생 수보티치와 타쿠마가 팀 전술에 녹아 들며 공격의 야수성을 더해 울산현대는 후반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은 지난 7월 전북전 충격의 패배 이후 FA컵 포함 10경기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다. 특히 8월 6일 열린 전북과의 시즌 3번째 맞대결에서는 이종호 선수가 전북의 심장 전주성에서 호랑이 세레모니를 선보이며 통쾌한 복수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 시즌 또 한 가지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홈 승률이다. 울산은 K리그를 비롯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이하 ACL) 예선과 FA컵 등 지금까지 총 20차례의 홈경기에서 단 3번 패했는데, 선두권을 결정할 9월의 4경기 중 3경기가 문수구장에서 열린다는 점은 울산의 선두 경쟁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창단 첫 FA컵 우승을 향해

이제는 우승컵이 필요하다. 3년 연속 FA컵 4강에 진출한 울산에게 더 이상 '우승 후보'라는 수식어는 칭찬이 아니다.

울산은 지난 8월 9일(수)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KEB 하나은행 FA컵 8강전에서 홈 팬들에게 시원한 공격축구를 선물 하 3대1 승리를 거뒀다. 신입생 수보티치는 한국 무대 데뷔 후 마수걸이 골을 성공시키는 등 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다. 울산은 오는 13일(수) 대전 추첨 결과에 따라 수원, 부산, 목포 중 한 팀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올해 FA컵은 그 어느 해보다 흥미진진하다. K리그 클래식을 대표하는 울산과 수원, 챌린지 리그의 강자 부산 아이파크 그리고 언더독(Under Dog/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컬음)의 반란을 꿈꾸는 목포시청 등 1~3부 리그의 소속구단들이 고르게 4강에 집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화제의 중심은 목포시청이다. 목포시청은 지난해까지 1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성남 FC를 3대0으로 완파하며, 당당히 준결승에 진출했다.

울산 김도훈 감독은 "아직 준결승 상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팀도 만만히 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선수들 역시 창단 첫 FA컵 우승을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울산은 1996년 FA컵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지 못했다. 4강에는 단골손님이었지만, 1998년 준우승이 최고 성적일 뿐, 번번이 결승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반기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이 이번 FA컵의 우승자가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시즌 시작 전 김도훈 감독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밝힌 올해 목표는 ACL 자력 진출이었다. FA컵 우승팀에게는 ACL 출전권이 주어지는 만큼, 우승 트로피와 함께 ACL에서 포효할 호랑이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울산현대 9월 경기일정

| 일 시               | 상대팀      | 장소       | 비고            |
|-------------------|----------|----------|---------------|
| 9/9(토) 저녁 7시      | 상주 상무    | 울산문수축구장  | K리그           |
| 9/17(일) 저녁 6시     | 제주 유나이티드 | 제주월드컵경기장 | K리그           |
| 9/20(수) 저녁 7시 30분 | 대구 FC    | 울산문수축구장  | K리그           |
| 9/23(토) 저녁 6시     | 전남 드래곤즈  | 울산문수축구장  | K리그           |
| 9/27(수) 시간 미정     | 미정       | 미정       | 9/13(수) 대전 추첨 |

## 울산현대 500승, 그 위대한 발자취



울산현대가 지난 7월 강원 FC와의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하며, 지난 1983년 프로축구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500승 달성 구단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1984년 실업팀에서 프로팀으로 전환한 울산(당시 팀명: 현대)은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 한국 축구의 정점에 올라섰으며, 준우승은 7회(1988·1991·1998·2002·2003·2011·2013년)로 리그에서 가장 많다.

첫 승은 1984년 4월 8일 럭키 금성과의 경기였다. 현대는 이 강민의 2골과 백종철의 결승골로 금성을 3-2로 물리치며, 창단 첫 승을 기록했다.

1990년 강원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연고지를 이전한 현대는 93년 대우를 상대로 팀 통산 100승을, 99년 천안을 상대로 200승을 거두었다.

울산은 이후 K리그를 대표하는 축구 명가로 자리매김하며, 프로축구 사상 첫 300승과 400승, 500승을 가장 먼저 달성한 팀이 되었다.

김도훈 감독은 "프로축구 사상 첫 500승을 달성하게 돼 영광스럽고 뿌듯하다"며, "그 동안 울산을 거쳐간 수 많은 선수와 스태프 그리고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울산현대 역대 승리 기록

| 기록   | 일시 및 스코어             |
|------|----------------------|
| 1승   | 1984.04.08 현대 3:2 금성 |
| 50승  | 1988.05.21 현대 1:0 금성 |
| 100승 | 1993.04.24 현대 2:0 대우 |
| 150승 | 1996.06.19 울산 4:1 전남 |
| 200승 | 1999.06.29 울산 3:1 천안 |
| 250승 | 2002.11.15 울산 4:2 부산 |
| 300승 | 2005.10.02 울산 3:2 부산 |
| 350승 | 2008.08.30 울산 3:2 대구 |
| 400승 | 2011.07.16 울산 2:1 강원 |
| 500승 | 2017.07.19 울산 1:0 강원 |

K리그 통산 500승을 달성한  
울산현대의 주요 경기들을  
블로그 'hi,hhi'에서 만나 보세요!



## 하얀 화선지를 채우는 은은한 묵향(墨香)에 빠지다

‘문인화&캘리그래피’ 수업이 한창 진행중인 강의실에는 향기로운 먹 냄새가 번진다.

회원들은 한껏 정신을 집중해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동양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림에 간결한 문구가 곁들여져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붓과 먹으로 그리는 글 한 줄, 그림 한 장

‘문인화&캘리그래피’는 선비나 사대부들이 여흥으로 그린 그림을 의미하는 ‘문인화’와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로 아름다운 서체를 뜻하는 ‘캘리그래피’가 결합돼 만들어진 강좌다.

지난해 10월부터 한마음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현재는 붓과 먹의 매력에 흠뻑 빠진 십 여명의 회원들이 수강하고 있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김귀섭 강사는 베테랑 강사로 회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김 강사는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9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사우 분들이 퇴직 후에 직업으로 할 수 있거나 자기 발전이 가능한 취미생활을 가졌으면 한다”며 문인화, 서예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넘어, 스스로가 취미 생활을 제 2의 직업으로 전환한 좋은 사례라 일컫는다.

### 부단한 연습으로, 초보도 문제 없어...

강의실에는 베틀이 공용으로 놓여져 있고, 붓, 화선지, 먹 등의 준비물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데 보통 5~6만원 정도면 5개월 가량 사용하는데 충분하다고 한다.

3개월이 갓 지난 초보부터 전시회 작품작을 준비하고 있는 수준급 제자들까지 한 교실에서 본인 작품 연습에 열중한다.

3개월 가량 난을 치는 연습을 마치고 나면 대나무를 그린다. 잎사귀 하나 하나를 그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잎사귀들을 그리고 또 그린다. 실력은 연습에 비례한다는 말이 진리다. 전시회 작품을 연습하는 회원들은 진달래, 국화 등 수묵에 색채를 가미해 기품이 느껴지는 작품을 그려낸다.

회원들은 초보자도 누구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강좌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회원 중에는 악필인 사람, 미술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연습으로 점차 실력이 개선됐다고 한다.

올해 3월부터 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유용주 부장(현대중공업 특수선선제설계부)은 “평소 서예에 관심이 있어 강좌에 등록했는데,

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취미인 것 같다”고 말한다.

좋아하는 취미생활 시간을 즐기고 배움의 의지를 실천하는 교실에는 진지함이 흐르고 수강생들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넘친다.

### 일상의 감성과 여유를 되찾는 강좌

한편, 한마음회관 1층 갤러리에는 8월 16일(수)부터 27일(일)까지 문인화&캘리그래피 회원들의 작품과 청운대 학생들의 페브릭 아트(천에 그린 그림) 작품이 전시됐다.

김귀섭 강사는 회원들이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보고 “표현 기법들을 열심히 배우고 익힌 결과, 뛰어난 그림을 완성했다”며 흐뭇한 미소를 띠운다.

하루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바쁨의 연속이다. 분주했던 하루를 정리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싶다면, 붓 그리고 먹과 친해져 보는 게 어떨까. 하얀 화선지를 앞에 두고 느긋하게 먹을 갈다 보면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인에게 직접그린 그림에 좋은 글귀 등을 곱게 적어 보내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다. 올 가을, 하얀 화선지에 퍼지는 수묵 향기로 감성과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 붓, 먹과 친해지는 시간 문인화&캘리그래피

장소 강의실 3층 미술실2

강의 시간 오전반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저녁반 월요일 오후 7시 ~ 9시

수강료 10만5천원/3개월 (준비물 별도)





### ▶ '신나는 물총싸움'

현대중공업 특수선품질경영부 박진용 기사  
이웃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물총싸움에 푹 빠진 아이들의 모습이다. 평소에는 쭈뼛거렸던 아이들도 어느새 완벽 적응해 신나게 물총싸움을 하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렸다. 사진을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 '내가 최고야~!'

현대중공업 발전설계부 이인준 과장  
아이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눈에 확 들어온다. 스위스 융프라우 지역 그린데발트의 설산 앞에서 점프 멋진 배경과 당당한 포즈 그리고 돋보이는 패션 센스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 살랑임과 즐거움 가득했던 순간들~



현대중공업 기업블로그 'Hi, HHI'는 여름휴가를 맞아 사진 공모전을 실시했다.  
아래는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과 아깝게 순위에 들지 못한 우수작이다.  
현대중공업 가족들의 설렘 가득했던 여름휴가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 "별 아래 또 다른 별"

현대건설기계 조립부 김재석 기사  
칠룩 같이 어두운 밤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반짝이는 별이 있기 때문. 별을 찾아 몽골로 여행을 떠난 김재석 사우는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배경으로 친구들과 함께 '인간 별'을 만들었다.

### '무더위 날리는 시원한 JUMP!'

현대중공업 특수선선체생산부 곽훈 기장  
울산 동구 주전의 탑등대 앞, 작은 갯바위에서 아이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다. 새까맣게 그슬린 아이들의 피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름을 나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머로 얼마나 신나는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된다.





### ‘더 높이 날아보자!’

현대중공업 상호정보기술부 **이영순** 과장  
제주도 1천100미터 고지에서 하늘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뛰어오른 순간을 포착  
했다. 합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높이 날아오른 아빠와 생생한 표정의 아  
이들이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냈다.



### ‘먹먹한 하늘과 낙타 그리고 나’

현대중공업 기술관리부 **김유진** 사원  
맑았다가 흐려짐을 반복하면서 생긴 먹구름과 먹먹한 하늘빛 그리고 그 아래 유  
유히 초원을 누비는 낙타 무리가 마치 영화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김유진 사  
원의 빨간 니트가 사진을 멋지게 완성했다.



### ‘신나는 바다 놀이터’

현대로보틱스 **전병주** 기사  
여름 휴가지는 역시 바다. 뜨거운  
햇볕도 두렵지 않은지 바다 안에  
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  
이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 아이  
의 즐거운 표정과 파도가 만들어  
낸 물보라가 모여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다.



### ‘뱅글뱅글, 빼꼼’

현대일렉트릭 생산지원부 **이상화** 과장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잊고 사는 곳들이  
있다. 이상화 과장은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대왕암공  
원을 휴가지로 선택했다. 사진은 울기등대 안, 뱅글뱅글 꼭  
대기까지 이어지는 계단에서 찍었는데, 재미있는 구도가  
인상적이다.



### ‘그리움이 깊어가는 밤’

현대중공업 전장설계부 **손봉수** 과장  
멋진 몽골 밤의 풍경에 넋을 잃게 되는 사진이다. 손봉수 과장은 “밤새 쏟아지는 별  
을 보며 누군가를 그리다 잠들었던 그 밤이 몽골 여행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긴 여름 휴가를 마무리하며

최민구 과장 | 현대미포조선 종합설계부

13일간의 긴 휴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휴가 전 처음으로 맞는 약 2주간의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휴가가 끝나니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특별한 곳을 여행하진 않았지만 깔깔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진들을 보면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 포항 호미곶 근처 카라반에서의 1박

첫 번째로 떠난 곳은 포항이었습니다. 한번도 캠핑을 가본 적이 없는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카라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간단한 준비물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거제도와 부산에서 해수욕을 즐기며

두 번째는 여행지는 거제도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장모님을 모시고 처제가 살고 있는 거제도로 이동하여 장목해수욕장에서 1박을 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광안리, 다대포 등 부산의 바다에서 해수욕과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서 아이들 감기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울산에서의 진정한 휴가

진짜 휴가는 두 번째 주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의 방학이 첫 번째 주에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와이프와 둘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즐기며 4일 동안 진정한 휴가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와이프와 둘이서 보내는 4일간의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준서, 준우야 미안 ^^

## 떠나요~ 둘이서~ ♪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 정희범 대리

올해부터 우리 회사도 하기휴가가 2주로 길어졌다. 첫 주에는 아내와 처형, 동서와 같이 강원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둘째 주에는 아내가 출근을 하니 할 일이 마땅치 않았다.

대부분의 회사가 8월 첫 주에 하기 휴가기간을 갖지만, 둘째 주에도 쉬는 회사는 드물었고 주변 친구들 역시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 부서에서 친한 동생인 천해식 사원도 다른 계획이 없었기에, 우리는 급하게 남자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기훈인 나로선 아내에게 조심스레 허락을 구했는데, 아내는 내 생각보다 너무 흔쾌히 다녀오라며 용돈까지 쥐어줬다.

남자 둘이서 하는 여행이다 보니 우도, 카멜리아힐, 녹차밭 같은 관광보다는 활동적인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로 결정했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서퍼들의 성지로, 처음 서핑을 접해보는 우리도 여기서 얼마든지 강습을 받고 즐길 수 있었다.

첫 날엔 비바람과 파도가 켜지만, 1~2시간 후 파란 하늘과 함께 파도를 가르며 서핑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사우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스쿠버다이빙이다. 우리는 범섬이란 돌섬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산소통을 등에 차고 바닷속을 경험하였는데, 사진이나 아쿠아리움에서만 보던 '물 반, 물고기 반'이 눈 앞에 펼쳐졌다.

우리 체험 다이빙이라 강사에게 매달려 다녔지만, 스쿠버다이빙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혼자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해, 자격증을 따서 다시 오리라 결심했다.

제주도는 여행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펜션이나 리조트가 아닌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결정했다.

게스트하우스 경험은 처음이어서 '30대인 우리가 어린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부서 회식에서 배운 소주에 홍초를 섞은 '홍초 소주'의 힘을 빌려 나이가 스물셋, 스물여섯인 동생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이들과 순식간에 준비해간 술을 다 먹고, "직장인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카드를 건넸다. 근처 마트에서 사오고 싶은 것 다 사오라고 했더니, 19명인데 겨우 4만원 끊어서 가져온 어린 친구들이 너무 순수해 보였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번 여행! 혹시라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스레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게스트하우스를 추천하고 싶다.





## 웃음꽃이 가득했던 가족여행

오형정 사위 |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우리 삼남매는 매 년 가족여행을 위해 매달 회비를 걷는데, 드디어 그 회비를 쓸 날이 다가온 것이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부안에 있는 변산반도로 떠나기로 계획하고, 숙소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휴가철인지라 숙소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검색해보니, 겨우 펜션 한 곳을 예약할 수 있었다. 성수기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 곳으로 결정했다. 원래의 계획이라면 멋진 리조트에서 보내는 가족여행이었으나, 아쉬운 대로 대명 리조트의 아쿠아나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가족 여행을 무수히 다녀왔지만, 온 가족이 수영복을 입은 모습은 이번이 처음인지라, 어색하기도 하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엄마와 할머니는 수영복을 따로 챙겨 오시지 않아 몸매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일명, 찹쌀이 수영복을 입게 되었다. 평소 옷차림과는 많이 달랐기에 두 분의 모습에 온 가족은 한바탕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렇게 즐겁게 물놀이를 마친 우리는 다시 펜션으로 돌아갔다.

'성수기를 맞아해 가격만 오른 걸 거야'라는 생각과는 달리 펜션은 정말 근사했다. 문을 열자마자 통유리로 되어 있는 한쪽 벽으로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일렁이는 파도를 배경삼아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그걸 본 이모와 이모부들이 여행에 합류하고 싶다며 그 날 펜션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우리는 더 늘어난 식구들과 함께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삼아 맛있는 바비큐를 먹으며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름휴가 덕에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했다. 다음 가족여행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엄마 아빠! 다음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 딸들을 위한 엄마, 아빠의 휴가



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 | 이정석 과장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긴 2주간의 여름휴가를 맞이했다. 설레는 마음이 컸지만 2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항상 휴가 계획은 아내와 큰 딸이 기획했기 때문에 휴가 며칠 전까지 난 아무런 계획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작년 휴가 때도 해외여행을 다녀왔기에 올 해는 국내 워터파크 또는 해수욕장 정도나 생각하고 있었다.

휴가 3일 전이 되자 난 아내에게 휴가 계획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런데 들려오는 아내 대답에 난 내 귀를 의심하고 말았다.

이번 휴가는 '나 혼자' 가라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큰 딸 진아가 스스로 부족한 수학 공부를 위해 개인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큰 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중학교 때까지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과외를 원하니, 마음 한 쪽으로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개인 과외를 알아보니 과외비가 생각 이상으로 고액이었다. 아내는 자기도 딸을 위해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아르바이트까지 구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이번 여름 휴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바야흐로 휴가는 시작됐고, 휴가 5일째부터 아내의 아르바이트도 시작되었다. 아내는 오후 7시까지 일을 해야 했기에 큰 딸, 작은 딸(중학교 2학년)의 아침을 챙겨 주고, 학원과 독서실을 보내주는 것이 나의 일이 되었다.

두 딸의 학원 시간이 다르고 학원도 서로 달라, 하루에 6번이나 차로 보내 주고 데리고 오는 바쁜 일상이 이어졌다.

첫 날은 하루가 어찌 지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아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서 집에 올 때면 녹초가 되었다.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정신 없이 운전기사를 하며, 점심, 저녁을 챙겨 주는 가사 일에 적잖이 힘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며칠이 지나니 요령이 생기고 시간 여유까지 생겨 둘째 딸과 오랜만에 도서관 데이트를 하는 등 이번 여름휴가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나름대로 즐거운 휴가를 보낸 것 같다. 어찌 보면 제일 뜻 있고 보람된 휴가이기도 했다. 내 자신도 무언가 가족을 위해 힘이 되었던 것 같아 기쁘고, 가족들과 함께여서 더 행복했던 여름휴가였다.





##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 2주간의 유럽 여행기

정승우 사우 |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설설계부

2주 휴가가 현실이 되었던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나는 세계지도를 뒤적거렸다. 그렇게 3일 후 아침, 나는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떠

나게 된 유럽 여행. 비행기 티켓이 제일 싼 곳을 찾아 끊은 것이었지만, 어쨌든 2주 짝짝 채워서 즐기다 오겠다며 다짐했다.

첫 날 피렌체는 영상 40도, 다음 날 로마는 영상 41도로 이탈리아의 첫 인상은 그저 '덥다'였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말로만 외우고 또 외웠던 '여름엔 고온 건조, 겨울엔 온난 습윤'이란 지중해성 기후를 직접 겪어보니 상상 못할 더위였다.

사실 온도는 높지만 습도는 높지 않아서 그늘에 가만히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으면 견딜만한 날씨였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바람만 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여행자의 입장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루 하루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이탈리아인들은 40도에 육박하는 한 여름에도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뜨거운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느긋하게 더위를 식히는게 아닌가. 그들의 더위에 대처하는 지독한 방법에는 동화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너무 좋아서 유럽에서의 시간 대부분을 이탈리아에서 보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는 로마와 르네상스의 총 본산인 피렌체까지, 여행 초반부의 컨셉은 2천년간의 건축과 미술 기행이었다.

나름 건축을 전공하면서 서양건축사 및 미술사 역



시 공부한 몸이라지만 회사에 입사하여 전공을 잊고 살아간 것도 어느새 3년이 되었다.

지중해성 기후만을 느끼고 돌아가는 여행을 할 수는 없어, 며칠 동안 꼬꼬마 건

축학도로 돌아가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2천 년 전, 기둥 하나 없이 직경 43.3미터에 달하는 돔을 쌓은 판테온, 4백 년 전 전체 길이 220미터의 높이로 지어낸 성베드로 성당을 보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또, 2017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노력은 먼 훗날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어떤 기록으로 남겨질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지중해의 더위에 슬슬 지쳐갈 때쯤 이번엔 이탈리아 남부로 향했다. 처음 유럽행 비행기 표를 찾을 때는 갈 생각도 없었지만 막상 가보니 너무나 좋아서 후반부의 일정을 어떻게 할지 대책도 없이 여러 날을 머물렀다.

로마에서 가려면 여러 번 교통수단을 갈아타야 하고, 지도상으로 볼 때는 가까운 곳도 돌아가야 했다. 그렇게 '좋다. 좋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하면서도 촉박한 일정으로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은 한국인들은 이곳을 짧게들 왔다 간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 곳을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고집스럽게 캐리어를 질질 끌고 다녔다. 기차, 전철, 버스를 타며 4일간 서고 싶은 곳에 서고, 묵고 싶은 곳에 묵고, 바다에 들어가고 싶을 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조선포라는 곳에 근무하며 날마다 바다를 보고 살



아가고 있지만 황하와 갯벌의 영향으로 누르스름한 서해 바다만을 보며 살던 내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둘러싸인 지중해가 그렇게 맑고 푸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카프리 섬의 동굴 속 맑은 햇살과 푸른 바다가 빚어내는 신비한 푸른빛의 향연도 잊을 수 없지만, 아말피 로드를 따라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바다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버스의 차창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호강하는 비경이었다.

그렇게 아말피 로드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포지타노는 가장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만들어진 마을이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와 해변 사이의 고도차가 200미터가 넘었다.

해변에 내려갔다 올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였지만,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나 프랑스의 파리에서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게 되었고 감흥도 떨어졌다. 하지만 마지막 여행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바를러라는 마을은 꼭 한 번 현대중공업 가족들에게 소개해보고 싶다.

여행 가이드북에도 전혀 정보가 없고, 그저 구글 지도 하나만 믿고 찾아간 이곳에 검은 머리 동양인은 나 하나 뿐이었다.

이곳은 네덜란드 '바를러 나사우' 마을과 벨기에 '바를러 헤르토크'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육로로 국경을 처음 넘어보는 것도 아니고, 특히 유럽 안에서는 몇 번째 국경을 넘나들고 있었지만, 그저 길바닥에 난 표식 하나로 나라를 넘나드는 이곳에서 나는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국경을 넘고, 또 넘었다.

자유롭게 두 나라를 오갈 수 있지만 어느 나라 땅이냐에 따라서 각 국의 법률의 적용돼 한 때는 한 식당 안에서

도 영업시간을 달리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곳에서 나도 식사는 벨기에에서 하고, 디저트로 먹는 아이스크림은 네덜란드에서 먹으며 우리는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누군가의 말 대로 동, 서, 남쪽은 바다에 가로막히고, 북쪽은 휴전선에 막혀,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아갔다면 우리도 더 넓은 세상에 진출하여 살고 있지 않을까?

이번 여행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탈리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도 이탈리아인들의 여유로운 삶이었다.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 밥 한 끼 먹으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고, 밥 다 먹고 계산서 받는 데만 10~20분은 족히 걸리던 곳.

물론 나는 끝끝내 그늘에 앉아 뜨거운 에스프레소로 더위를 식히는 삶에 적응하지는 못했다.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베네치아를 떠나 파리 공항에 내리자마자 열일 제쳐놓고 스타벅스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얼음 가득 채울 것을 요구했던 이방인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왜 그 때만큼이라도 좀 더 여유롭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속도가 생명인 한국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가끔은 그런 여유로운 삶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다.



## 찬란한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

한화림 사원 | 현대일렉트릭 배전변압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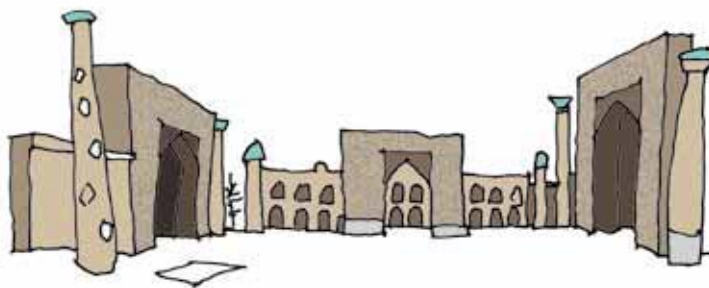
2017년 여름휴가를 맞아, 생소한 여행지인 우즈베키스탄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많은 이들에게 미녀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여행지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아래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에 있는 나라로, 국내에 직항 노선을 타고 7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언어는 자국어인 우즈베크어를 80%, 러시아어를 20% 정도 사용한다.

중국에서 로마까지 동서양의 문화를 이어주던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문화를 수용하며 찬란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곳이며, 유럽 여행객들 사이엔 자유여행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다.

여행 전, 많은 분들이 여행지로 잘 알려지지 않고 번번한 여행책자도 없는 우즈베키스탄에 왜 가느냐고 물었다.

미녀, 웅장한 사원, 오아시스 도시의 풍족함, 저렴한 물가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여행지를 개척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선택했다.



첫 번째로 여행한 도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였다. 수도인만큼 차도 많이 다니고 편의시설도 많았다. 타슈켄트에는 ‘초르 수 바자르’라는 거대한 재래시장이 있다. 초르는 ‘4’를 의미하고, 수는 ‘물’, 바자르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4개의 물줄기가 흐르는 시장’이다.

이곳은 무엇보다 우즈베크 시민들의 생활상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다. 많은 현지인들이 아침 일찍 나와 과일이나 고기, 채소 향신료 등을 판매하는데 정겨운 우리나라 전통시장 느낌이 난다. 현지 상인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어 여행 도중, 따뜻한 느낌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난다.

여행은 ‘먹방’이 진리 아닌가? 군것질을 하며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초르 수 바자르’에서 파는 것들 중 최고는 과일이었다.

우즈베크은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라 일조량이 뛰어나 과일들이 엄청나게 달고 맛있었다. 더 놀라운 건 과일들의 가격이 말도 안되게 저렴한 것이다. 두 손으로 들기에 무거운 멜론이 한국 돈으로 1천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사먹었으면 족히 2만원은 했으리라.

가격이 저렴한 탓에 여행 중 멜론, 복숭아, 자두 등 과일을 자주 사먹었다. 한국에서 잘 안 먹던 과일을 하도 먹다 보니 피부가 탕탱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즈베크의 과일들이 여전히 생각난다.

다음으로 방문한 사마르칸트는 오아시스 도시로, 실크로드의 사막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었던 도시다.

아주 번성했던 도시만큼 레기스탄 광장, 샤 히진 다 모스크, 비비하눔 모스크 같은 거대하고 웅장한 사원이 모여 있었다.

레기스탄 광장을 구경하던 때, 많은 우즈벡 현지인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아 한껏 우쭐했던 기억이 난다.

또 관광지를 거닐던 중에 사마르칸트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는 '아슬리든'이라는 친구와 친해져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에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인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물어보았다. 아슬리든은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영향 그리고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갔다가 우즈벡에 돌아온 현지인들의 좋은 평가가 합쳐져 한국인들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많이 마주쳤다. 골목길을 지나가다 누군가 익숙한 한국말로 "한국인? 들어와~!"라며 우리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 분은 경기도 이천의 용역소에서 5년 정도 일하다 우즈벡에 돌아왔다고 한다. '의정부'나 '덕정사거리' 등 익숙한 지명을 말하는데 너무 반가웠다.

이어서 우리는 오아시스 도시인 부하라로 이동했다. 부하라에는 '칼론 미나렛'이라는 큰 첨탑이 있는데,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사막의 등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한다. 예전 칭기즈칸이 우즈베키스탄을 침략했을 때, 많은 유적지를 파괴했지만 칼론 미나렛만큼은 파괴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칼론 미나렛'은 예전에 죄인들을 떨어뜨려 처형하던 곳이었다고 하는데, 죄인을 떨어뜨려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신의 은총이라 여겨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고 한다. 첨탑의 높이는 46미터에 깊이가 10미터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의아했었다. 여러 역사적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오래된 첨탑이지만, 새로 지은 것 마냥 아름답고 웅장했다.

또, 부하라에서는 '라비 하우스'라는 연못에서 우즈벡에



서 즐겨먹는 뽕밥(복음밥)과 샤슬릭(양꼬치구이)을 먹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연못이 있어 은은한 조명 아래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정말 즐거웠다. 참고로 우즈벡은 거의 모든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 있어 고수를 못 먹는 사람은 꽤 고생을 할 수 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여행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가슴이 따뜻한 여행이었고, 평소에는 접하지 못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또한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서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기도 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은 나라, 우즈베키스탄이었다.



## 인도에서 일어난 기적

최문수 기원 | 현대중공업 소재생산부

나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침, 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0년에는 전국 뜸사랑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침, 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정규 1년 과정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그 후 부산 지부 뜸사랑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SNS를 통해서 교류하게 된 인도의 친구들이 침과 뜸에 대한 교육 및 전수 그리고 치료 봉사를 요청해 와 인도를 방문하게 됐다. 방문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일주일로 결정되었고, 우리는 장침, 호침, 쑥뜸 등 필요한 침구 도구를 챙겼다.

30일에 출발했는데, 하이데라바드 공항에 도착하니 31일이 되었다. 공항에는 인도 친구 10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인도 땅을 밟게 되었다.

공항에서 2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숙소로 이동한 뒤, 교육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을 하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치료 봉사를 하기로 했다.

8월 1일, 정통 침구와 무극보양뜸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 교육장에 50여명의 수강생이 찾아왔다. 열의와 관심이 대단해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2인 1조로 반복 실습을 하며 무극보양뜸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 수강생들을 치료 봉사 현장으로 데려가 직접 시술 장면을 보여주며 교육을 이어나갔다.

한편, 교육 후 진행됐던 치료 활동은 처음으로 하는 해외 봉사라 긴장과 떨림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부산 지부에서 여러 경험을 쌓아온 우리는 무극보양뜸의 치료 효과에 자신감이 있었다.

요통, 무릎 통증, 신장결석, 당뇨, 시력장애, 불임, 부종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천장에 돌아가는 프로펠라 선풍기가 전부인 곳에서 우리는 동분서주하며 침상 위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치료했다.



치료 효과를 본 환자들은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워주었고, 무릎 통증 환자들은 뛰면서 좋아해 무더운 여름 날씨도, 피로도 날아가는 것 같았다.

첫째 날부터 많은 환자들이 물려와 양해를 구하고 중증 환자인 시력장애, 팔 신경마비 환자를 끝으로 첫 날의 치료 활동을 마쳤다.

그런데 8월 2일과 3일에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났다. 치료 활동을 하면서 사진 찍자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 마치 한류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8월 4일에는 그 동안의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시험 치기로 했다. 시험에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교육 수료증을 주었다.

이후, 마련된 뒤풀이 시간에는 수료생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살면서 춤과는 담을 쌓고 지내왔던 나인데, 분위기에 이끌려 젊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게 된 것이다. 그들의 환호와 밝은 웃음을 보니 한층 젊어지는 것 같았다.

한편, 우리의 교육과 치료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인도 지역 방송사에서 취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인터뷰는 친구가 영어를 통해 대답을 하면, 관계자가 인도로 번역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우리가 시술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치료 활동은 계속 되었다. 그러던 중, 시력을 잃은 환자가 도움을 요청해왔다. 나는 시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눈의 혈자리에 침을 놓고, 25분 후 발 침했다.

그런데 환자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돌연 그 환자가 “세상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 말에 나 또한 놀랐고, 관계자 및 환자 가족들의 환호와 고맙다는 인사에 한동안 장내가 시끌벅적 했다.

이후 두 번째 기적이 또 나타났다. 한 쪽 눈의 시력이 매우 떨어져 잘 보이지 않던 환자가 이틀 동안 치료를 받더



니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며 고마움을 전하러 온 것이다. 진정 기적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치료 봉사를 하기로 한 마지막 시간까지 최대한 빠른 손놀림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치료를 다 하지 못하고, 봉사를 마쳐야 해 아쉬운 마음이 한 가득이었다.

5일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남은 시간 동안 유적지를 관광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생각해보니, 7일간 봉사활동을 했던 이번 여름휴가는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우선임을 느꼈다. 나는 이제 정년을 한 해 앞두고 있는데, 모든 사우들이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현대중공업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 26일(수), 8월 18일(금), 8월 24일(목) 총 3회에 걸쳐 '자녀 초청 견학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우 자녀들이 소감을 보내 왔습니다.



오윤주 양 (대현중 1학년)

특수선기본설계부 오영우 부장 딸

## 대단한 현대중공업, 자랑스러운 아빠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회사이자, 아빠가 다니시는 회사다. 평소에 현대중공업을 견학해보고 싶었는데 지난 7월 26일,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

나는 견학을 오기 전까지 현대중공업이 배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으로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내가 알지 못했던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중공업 전시실에서는 정주영 창업자님의 일생을 볼 수 있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전시관을 둘러본 후,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배를 만드는 과정을 보았다. 조각들이 하나씩 조립돼서 큰 배가 된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또, 영빈관이라는 높은 곳에서 현장을 보니 세계 최대 조선소가 더 실감이 났다. 설 새 없이 움직이는 빨간 설비가 '골리앗 크레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라 하니 믿을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진짜 크고 대단한 기업이라는 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이하 VR) 안전 체험에는 VR 기기를 착용하고 화면을 봤는데,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내용이 진짜 현실 같아서 깜짝 놀랐다. 너무 무서워서 안전장치를 꼭 해야겠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견학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며 아빠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아빠가 현대중공업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1만톤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과 3천톤급 다목적 호위함을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하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 어마어마한 규모에 “우와”

방학이라 한가하기만 할 것 같던 목요일에, 나는 아빠의 권유로 동생과 함께 현대중공업에 견학을 가게 되었다.

홍보영상 시청으로 현대중공업 견학을 시작했다. 이후, 아산기념전시실에서 정주영 창업자님의 삶과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다는 배의 구조 등을 배웠다.

야드 투어를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영빈관 전망대에 도착하니 현대중공업의 어마어마한 공장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낮이 나갈 만큼 멋있었다.

“우와! 내가 VR 기기를 쓰다니!” VR 안전 체험장에 도착한 나는 처음 써보는 VR 기기에 기쁘고, 설렘했다. 화면 속 주인공이 어딘가에 부딪치거나 줄에 걸려 넘어질 때면 함께 움찔거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거렸다. 내가 정말 체험 속 주인공이었다면 조심 또 조심했을 것 같다. 재미있었지만 마음이 떨렸던 체험이었다.

견학 전에는 ‘현대’에 대해 흥미가 없었는데, 견학이 끝날 때쯤에는 ‘나중에 나도 현대중공업에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견학하고 싶다.



김수민 양 (효정중 1학년)  
특수선의장생산부 김기현 사우 딸



자녀들의 생생한 견학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김현석** 군 (대송중 1학년)  
엔진발전부 김유정 사우 아들  
아버지 회사를 둘러보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아버지가 울산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신가은** 양 (현대중 1학년)  
기술교육원 강소정 사우 딸  
실제로 현대중공업에 와  
보니 부모님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  
시는지 알 것 같다. 아버지가 우리 때문  
에 많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신경을 많이 못써드려서 미안했다.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유창서** 군 (상안중 2학년)  
특수선의장설계2부 유정수 사우 아들  
세계 최초로 했던 일들이 많  
은 회사여서 놀라웠다. 직접 와서 배 만드는  
걸 보니, TV에서 봤던 것보다 더 커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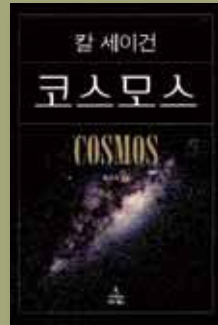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著)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국보 제 151호 '조선왕조실록'은 대체로 지루하거나 내용이 많아 읽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집은 만화로 되어 있고, 생생하게 캐릭터가 묘사돼 있어,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고, 구체적인 서술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 역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청소년이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은 어른 모두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읽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자 풍부한 원형 자료로서 우리 문화의 원천이 되는 조선왕조실록을 보다 쉽게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강민우 과장  
현대중공업 힘센기술2부

2



**코스모스**  
(칼 세이건 著)

이 책은 1976년 칼 세이건이 동료 과학자들과 13부작으로 기획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방송은 천문학을 다루되 인간을 폭넓은 관점에서 함께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부진한 시청률로 초라한 성적을 거둘거란 예상을 깨고 전세계 60개국, 6억명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주적 질서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은하계의 진화, 태양의 삶과 죽음,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의식 있는 생명이 되는 과정 등이 250여 컷의 사진 일러스트와 함께 펼쳐집니다. 문학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칼 세이건의 우아하고 빼어난 문장도 매력적입니다.

여경한 대리  
현대미포조선 선장설계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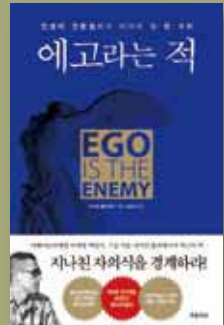


**7번째 내가 죽던 날**  
(로렌 올리버 著)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타임루프 판타지 영화 '7번째 내가 죽던 날' 원작 소설입니다. 이 책은 한 소녀가 반복되는 죽음을 겪으며 주변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와 멋진 남자친구, 잘 나가는 친구들까지 타인에게 잔인하게 굴어도 용납되는 인기인의 삶을 살던 주인공 사만다. 하지만 어느 날, 파티에서 돌아오던 사만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 주인공 사만다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저 후회하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만다가 어떤 이유로 7번 반복되는 죽음을 겪는지 그 비밀 이야기가 궁금한 사우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박성환  
현대호텔

4



**에고라는 적**  
(라이언 홀리데이 著)

누구나 저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망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인생에서 끊임 없이 반복됩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인 '에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에고'는 내면의 자만심과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겨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유명인사들의 인생을 조명하며 자신의 에고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눈 앞의 성공을 쫓기보다는 열린 마음과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배영준 차장  
현대일렉트릭 영업지원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5



###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著)

지난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로 쓴 「너의 이름은」. 이 영화는 대한민국에서도 360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나갔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의 원작 소설인 이 책은 일본에서 100만부 넘게 팔릴 만큼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저자는 도쿄에 사는 소년 '타키'와 시골에 사는 소녀 '미츠하'의 기적과 같은 사랑을 섬세한 문체로 짧지만 강렬하게 담아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면, 책에서는 등장인물의 완벽한 심리 묘사로 영화와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선사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에게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진석 대리  
현대미포조선 기본설계부

6



### 경제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전상섭 著)

이 책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정의를 세우겠다'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경제 민주화 정책들이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IMF 때 쏟아져 나온 각종 규제정책으로, 결국 한국 경제에 위기가 왔으며 비생산적인 주장에만 휩싸이지 말고, 성장, 고용, 분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어서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 사례를 통해 대안 마련과 한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의 힘을 키우자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꺼내드는 국내 움직임에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사우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유승훈 과장  
현대중공업 협력사기획부

7



###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著)

이 책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각종 어려움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과거의 일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만, 사람들의 성향은 잘 변하지 않는단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칙보다 향상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아니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만큼, 좀 더 현명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제가 소개하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귀덕 대리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8



### 채식주의자 (한강 著)

이 책은 채식주의자가 된 주인공 영혜로 인해 삶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 주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된 영혜를 위해 주변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녀를 돕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가 된 현재의 영혜에게는 그것이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 폭력에 대항하는 그녀는 죽어가는 식물처럼 말라갑니다. 작가는 주인공 영혜를 극단적인 피해자로 설정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놓아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평소,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조언과 도움이 상대방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문태준 사원  
현대E&T



## 아파트 매매 시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 계약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 사례 및 질문

김 부장은 올해 9월 1일 강남아파트를 매도하려다가, 정 대리에게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1억1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정 대리가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찾을 수 없다며 김 부장에게 우선 1천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은 다음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그 날, 김 부장은 인터넷에서 강남아파트의 매매가가 급상승한다는 기사를 보고, 다음날 공인중개사에게 2천만원을 주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정 대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1억원을 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공인중개사로 부터 김 부장이 2천만원을 해약금으로 주면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정 대리는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법원에 공탁하고, 9월 7일까지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며 다투고 있는 김 부장과 정대리. 이 경우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 답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약정하는 경우를 '계약금 계약'이라 하며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계약금의 배(倍)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민법 제565조 1항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도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와 같이 약정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김 부장과 정 대리는 계약금을 1억1천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정 대리가 계약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김 부장이 지급받은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다73611 참조).

즉, 김 부장이 2천만원의 해약금을 지급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오히려 정 대리가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공탁한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김 부장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2억2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02-746-4667







조르주 피에르 쇠라(1859~1891), 그랑드자트의 흐린 날(1888)

높고 푸른 하늘, 살짝 부는 바람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신인상주의 화가인 조르주 피에르 쇠라는 그랑드자트 섬에서 생활하며 햇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섬의 경치를 서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수만 개의 점이 모이면, 물감을 섞어놓은 것처럼 색이 혼합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부드럽고 신비한 느낌의 점묘화들을 완성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의 그림에서는 조금은 쓸쓸하면서도 낭만적인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들도 축복 같은 계절, 가을의 초입에서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움직이는 힘!

## 현대 태양광 ESS System

현대힘스는 태양광 ESS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사후관리까지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태양광 연계 ESS System  
(Plug-In Type)

### 현대 태양광 인버터 & ESS 인버터 시리즈

#### 태양광 인버터 (옥내형)

HPC-050HT / HPC-100HT-K1 / HPC-200HT-K1 / HPC-250HT-K1 /  
HPC-400HL-K1 / HPC-500HL-K1 / HPC-500HL-K2 / HPC-600HL-K1 / HPC-1000HL-K1

#### 태양광 인버터 (옥외함형/옥외형)

HPC-100HT-K1-OM / HPC-200HT-K1-OM / HPC-250HT-K1-OM / HPC-400HL-K1-OM /  
HPC-500HL-K1-OM / HPC-500HL-K2-OM / HPC-600HL-K1-OM / HPC-1000HL-K1-OM /  
HPC-100HT-K1-OU

#### 태양광 연계 ESS용 인버터 (옥내형)

HEP-100HT-K1 / HEP-250HL-K1 / HEP-500HL-K1 / HEP-1000HL-K1



태양광 인버터 (옥내형)



태양광 인버터 (옥외함형/옥외형)



태양광 연계 ESS용 인버터 (옥내형)

Sales & Marketing: 제어시스템영업과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21

Tel: 052-203-9657, 9658, 9659, 9667 Fax: 052-203-9695 E-mail: kangsj@hhl.co.kr